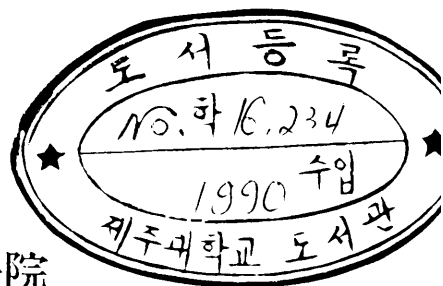


20.35
11.11

碩士學位論文

勉菴 崔益鉉의 漢詩 研究

— 流配漢詩를 中心으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金 景 國

1989年 12月 日

勉菴 崔益鉉의 漢詩 研究

— 流配漢詩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梁 重 海

金 景 國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제주대1989년12月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金景國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1989年 12月

A STUDY ON THE MYŎN AM'S CHINESE POEMS

— MAINLY ON THE EXILE POEMS—

Kyŏng-Kook, Kim

(Supervised by Professor Choong-Hae, Y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89

目 次

I. 序 論	1
II. 勉菴의 生涯와 時代的 背景.....	5
III. 勉菴의 詩世界.....	9
1. 勉菴의 文學觀	9
2. 氣魄과 鬱憤의 志氣	12
3. 日常과 情感의 詠懷	23
4. 自然과 交遊의 空間	34
IV. 勉菴 漢詩의 國文學史的 意義.....	46
V. 結 論.....	49
參考文獻	51
英文要約	55

I. 序 論

勉菴 崔益鉉은 1833년(純祖 33년) 12월 5일 경기도 포천현 내북면 가채리에서 태어나 1906년 11월 7일 유배중이던 對馬島 嚴原 衛戍營에서 74세를 일기로 순국하였다. 23세에 出仕한 후 그의 생애는 상소와 유배의 생활로 점철되었으며, 反日巨頭로서 일제의 폭압 밑에서도 의병을 일으켜 우국의 신념을 斥邪로 몸소 실천한 지사였다. 이러한 생애와 신념이 바탕이 된 그의 한시가 《勉庵集》에 326首¹⁾ 실려 있다. 그런데 금강산 기행시 40首를 제외하면 대부분 유배지에서 쓰여진 작품들이다.

면암의 생애를 관류한 衛正斥邪란 원래 18세기 말엽 西學을 탄압하기 위하여 내세운 명분이었다.²⁾ 그러던 것이 1866년의 丙寅洋擾로 西洋의 위협이 가시화되자 吾道(儒學)를 지키기 위해 洋賊과의 타협을 극력 반대한 蘆沙 奇正鎭, 華西 李恒老 등 韓末 巨儒들의 上疏를 통하여 불붙기 시작한 것으로 華夷論의 世界觀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두 거구의 주장을 계승한 위정척사 운동은 1876년 병자수호조약의 체결로 再然된다. 이때 면암을 중심으로 開港과 관련한 상소³⁾에서는 倭·洋을 一體로 보고 무역의 불합리함이나 邪學의 만연 가능성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 시기 면암 등 華西 문하생들에 의하여 斥邪論이 主導되기 시작한 것은 중대한 변화였다. 그것은 척사론이 현실문제에 직접 행동으로 간여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말의 의병운동이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甲午更張(1894)과 乙未事變(1895)을 전후한 시기다. 그후 乙巳保護條約에서 韓日合邦에 이르는 기간동안 위정척사파의 유생들은 의병운동의 지도자로서 일제 침략에 저항한 핵심 세력이 되었다.

면암은 외세가 물밀듯이 쳐들어오던 개화기에 위정척사의 사상으로 일관하여 국

-
- 1) 《勉菴集》 卷之一에 133首, 卷之二에 168首, 《續集》 卷之一에 16首, 卷之三에 9首 등 총 326首. 이외에도 林炳瓚의 《해외일기》에 8首가 전하여지고 있으며, 최근 제주도에서 발굴된 筆寫本 7首가 있는데, 他유배지에서도 양상은 비슷하리라 여겨지므로 앞으로 자료 발굴 작업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 2) 朱昇澤 〈開化期の 漢詩 研究〉—文學觀과 作家意識을 中心으로—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4. p. 17.
 - 3) 〈持斧伏關斥和議疏〉 丙子 正月二十二日

내외의 각종 모순에 저항했다. 淸道를 바로 잡기 위해 상소를 올리면 정권세력에 의해 절해고도로 유배를 당하게 되고, 병자수호조약이 일제의 강요에 의해 체결될 무렵 상소로써 부당함을 밝혔다가 또 유배를 당하게 된다. 그리고 강점당한 조국과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위해 분연히 의병을 일으켰으나, 결국 對馬島에 수감되어 순국하기에 이른다.

그의 한시 326首 중 40首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유배의 상황에서 쓴 작품들이다. 그러므로 면암 한시 연구를 위해서 유배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분류로 머물고만 것은 면암 한시 연구에 바른 조건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면암 한시의 총체적 연구, 면암 시세계의 고찰을 위해서는 유배상황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개화기 위정척사의 정신적 지주였고, 사상을 행동으로 실천했던 면암은 정신사적인 측면이나 한말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정신사적인 측면이나 한말사 측면에서의 연구는 상당한 수준을 이루었다.⁴⁾ 그러나 문인으로서의 면암, 그의 문학적 집적물에 대한 연구는 소루한 감이 없지 않다. 최근 安秉烈⁵⁾, 許品會⁶⁾에 의해 면암 한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개진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를 논의하여 선행연구 업적을 보충하고 면암의 시세계를 유배 상황을 고려하여 고찰한 후 면암 한시의 국문학사적 의의와 그 위치를 밝히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

이것을 위해 면암의 생애, 사상은 면암 한시 형성 배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시세계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서구의 충격, 일제의 침략, 내적 부패와 모순의 三重苦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면암의 현실인식은 무엇으로 대표되며, 이러한 현실인식이 작품에는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가. 면암의 문학관은 어떤 양상으로 작품에 투영되고 있는가. 그의 유배적 상황은 한시에 어떻게 침잠되고 있으며 시세계 형성에 어떤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는가. 지금까지 達意爲主의 내용이라고 단정하여 문학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면암 한시의 문학성은 어떤 측면에서 고구되어야 할 것인가 등의 의문과 면암 한시의 문학사적인 위치를 밝히게 될 것이다.

4) 栗谷思想研究院 《韓國思想論叢》 第3輯, 1984.

5) 安秉烈, 〈勉菴 漢詩의 內容考察〉, 《語文論叢》 第23輯,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 연구회, 1982.

6) 許品會, 〈勉菴 崔益炫의 詩文學故〉, 동국대학교 碩士學位論文, 1986.

이를 통하여 면암의 시세계 고찰은 시대별로 그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면암의 시세계는 역사적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대한 시세계 고찰이 아니라, 작품의 주제별로 그의 시세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면암 한시 대개가 시대의 변천과정에 따라 그것에 수용하여 변천되었다기보다는 'Ⅲ장'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세 유형의 시세계가 교차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유배지에서 쓴 작품을 연구의 중심대상으로 삼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疏, 書, 記, 序, 跋, 神道碑 등을 참고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유배지에서 쓴 작품으로 한정하는 것은 그의 시세계에서 볼 때 한 부분에 불과하다. 반세기동안의 시작 활동⁷⁾에서 그의 시세계가 다양한 변모를 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쓴 한시만을 대상으로 해도 전체의 시세계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특히 그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미루어 유배지에서 쓴 작품이야말로 그의 삶을 대표하는 시기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개화기 위정척사파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활발한 반면에 문학적 접근은 매우 미미한 편이다. 이것은 개화기 문학장르중에서 한시를 제외시켜 장르의 종합적 연구가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화기 한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연구는 80년대에 들어와서야 시도되었다.⁸⁾ 그러나 개화기 한시 중 면암 한시에 대

7) 《勉菴集》에는 1873년(41세) 제주도 유배부터 1906년(74세), 대마도에서 순국직전까지의 작품이 수록됨.

8) 지금까지 개화기 한시에 대한 연구 업적을 들어본다면, 단행본으로

· 閔丙秀外, 《開化期の 憂國文學》, 新丘文化社, 1974.

· 金溆東, 《韓國開化期の 詩歌 研究》, 詩文學社, 1981, 등이 있고, 論文으로

· 金榮喆, 《開化期の 詩歌 研究》,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75.

· 朴乙洙, 《開化期の 抵抗詩歌 研究》(I), 《韓國學論集》第4輯, 漢陽大韓國學研究所, 1983.

· 朱昇澤, 《開化期の 漢詩 研究》, —文學觀과 作家意識을 中心으로—,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4.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연구의 바탕 위에서 勉菴 漢詩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 安秉烈, 《勉菴 漢詩의 內容考察》, 《語文論》第23輯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82.

· 林濟愷, 《崔勉菴 研究》—그의 思想과 詩를 中心으로—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碩士學位論文, 1988.

· 許喆會, 《勉菴 崔益鉉의 詩文學攷》, 동국대학교, 碩士學位 論文, 1986. 등이 있다.

이밖에도 趙東一의 《한국문학통사》4, 지식산업사, 1986.에서 文學史 記述 과정에서는 처음으로 漢詩에 史的 位置를 부여하고 있다.

한 연구 또한 아직도 미미한 편이다. 이것은 문학의 매체인 언어가 漢字인 점도 있다. 그러나 한자로 기록되었다하더라도 그 시대 의사전달의 매체로 대중적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문학의 범주로 고찰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최근 이것을 극복하고 연속적 문학사의 기술을 시도하고 있지만 문학사의 위치 정립에 대한 논란이 팽배한 상태다.⁹⁾ 여기서 아직도 면암 한시에 대한 연구가 사상적 접근과 해석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지양하여 면암 한시에 대한 문학적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안병렬, 허철희의 연구 성과는 면암 한시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한 중대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전자의 논문은 면암시를 仙人, 志士, 情人으로서의 면암, 즉 三面性을 지닌 하나의 君子詩로 그 특징을 요약했다. 매우 간결하면서도 비약없이 긴밀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작가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대한 현실인식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가 되지 못한 점이 있고, 후자의 논문은 전자의 것을 보완하여 면암시의 형성배경을 역사적, 가문적, 수학과 사상, 문학관으로 살핀 후 시세계를 ‘憂國傷時’와 ‘江湖閑靜’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인 성과를 이룩했다고 본다. 그러나 대부분이 면암 한시가 유배지에서 쓴 것임에도 불구하고 면암시의 형성배경에서 유배의 상황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시세계에서 하위분류로 설정한 점이 미진한 전개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고는 최근 이 두 선행 업적의 미진한 면을 자료의 평가와 시세계의 고찰을 통하여 보충하고, 면암의 시세계에서 다각적인 측면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하겠다.

9) 白鐵, 《新文學思潮史》, 新丘文化社, 1986. 趙演鉉, 《現代 韓國文學史》, 성문각, 1978. 의 기술에 있어서는 개화기의 문학을 과도기적 현상으로 파악하여 문학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비연속적 관점이며, 金允植·김현, 《韓國文學史》, 민음사, 1973. 趙東一,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1986. 에서는 비연속적 관점속에 내포된 전통 단절론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화기 문학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하고 있다.

Ⅱ. 勉菴의 生涯와 時代的 背景

본고는 개화기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면암의 시세계를 고찰하고 있다. 즉 작가가 지향하는 바가 작품속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재현되고 있으며 그 귀결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방법을 위해서 먼저 생애, 사상, 유배 배경, 시대적 상황과 그에 따른 현실 인식을 역사주의적 방법으로 서로의 관계를 긴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작품에 영향을 준 개인적 사정, 시대적 상황, 사상적 영향을 바탕으로 면암의 현실 인식이 작품에 어떻게 형상화되었는가를 방증하기 때문이다.

면암의 시문학은 그의 생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당시의 시대와도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문학을 시대의 반영으로 본다면, 면암의 시문학은 구한말의 內憂外患 속에서 형성된 역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구한말은 제례적 전통가치에 커다란 변화가 일기 시작하는 격변기다. 국내적으로는 제례의 봉건질서가 점차 해체 국면을 맞으면서 이를 존속시키려는 세력과 새로운 서구 문물을 유입하려는 세력간의 알력이 심화되고, 대외적으로 개항이나 갑오경장 등 서구 일제의 강요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역사적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다. 특히 이 시기에 대원군의 서원 철폐, 경복궁 증축을 위한 호전, 당백전의 발행 등 그의 批政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병폐와 민심을 흉흉하게 한다. 또한 丙寅洋擾(1866), 辛未洋擾(1871), 開港(1876), 甲午更張(1894)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근대문물의 유입과 함께 제국주의적 침략 의도도 점차 심화된다.

이런 역사적 격변기 속에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려는 전통적 고수세력의 한 사람이었던 면암은 그의 시작품과 행동을 통하여 서구나 일제의 문화적 침투에 대항한, 당시로서는 보기드문 지식인 중의 한 사람이다.

勉菴 崔益鉉은 1833년(純祖 33년) 12월 5일 경기도 포천에서 아버지 嶺와 어머니 경주 이씨 사이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兒名은 奇男이라 했다. 면암은 신라말의 문장가로서 추앙을 받았던 崔致遠(857~?)과 고려초 시에 재질을 발휘하였던 崔承瓘(927~989)의 후손이다. 또한 曾祖 光肇는 많은 저서¹⁰⁾를 남길 만큼 문학적 소양을 갖고

10) 《嘉陰遺稿》, 《東人列傳》, 《朱子立言》, 《正雅本末緣》

있었고, 祖父 克敬은 형제간에 서로 화답한 시문을 책¹¹⁾으로 엮을 정도로 문학적 분위기의 가문이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면암의 시적인 재질은 이미 그의 혈통에서부터 내려온 셈이다.

이러한 가문의 분위기와 더불어 면암이 가르침을 받았던 스승의 영향도 시인으로서의 재능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구한말의 척사적 행동가중의 한 사람으로 탈바꿈시키는데 큰 몫을 차지한다.

면암은 매우 총명해서 6세때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14세때부터는 華西 李恒老에게서 수학했다. ‘勉菴’이라는 호도 15세에 스승을 하직할 때 화서가 지어준 것이다. 화서 이항로는 문인인 동시에 구한말 위정척사파 거두중의 한 사람으로 면암의 행동적인 척사도 화서의 성리학적인 훈육의 결과다. 화서의 학문이 곧 면암의 학문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제지간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잠시 조선조 성리학의 계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사상적 계보가 면암의 의병활동 등 행동가로서의 그의 생애나 사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조선조의 성리학은 조선 전기에 官學派와 士林派로 나뉜다. 후에 사림파는 다시 李滉과 李珥의 主理論의 입장과 主氣論의 입장으로¹²⁾ 크게 대별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이의 주리론적 입장은 후에 李滉, 丁若鏞 등의 실학과와 개화파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황의 주리론적인 입장은 이항로, 최익현 등의 위정척사파와 의병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¹³⁾

11) 《攄華聯芳集》

12) ① 金鎬城, 〈勉菴義陣을 통해서 본 韓國民族運動의 實體〉, 《韓國思想論叢》第3輯, 粟谷思想研究院, 1984, p. 75에서 “朱子の 理氣哲學은 氣質之性 중심의 主氣의 경향과 本然之性 중심의 主理의 입장으로 이해되면서, 전자에 충실한 이는 울곡, 후자에 충실한 이는 퇴계”로 보고 있다.

② 尹絲淳, 〈韓國性理學의 전개와 특징〉, 《韓國思想의 深層研究》, 도서출판 宇石, 1982, p. 198에서 “16세기말 이황, 이이에 이어 主理, 主氣說 두 학설이 본격적인 편향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①②를 통해 볼 때 主理와 主氣로 나누는데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본다. 물론,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학파에 귀결시키는데는 다소 논쟁이 있으리라 보아지나, 본고에서는 金鎬城과 尹絲淳 등 先學의 입장을 따라 主理說과 主氣說로 대별한다.

13) 金吉洛, 〈韓末性理學과 義理思想—勉菴을 中心으로—〉, 《韓國思想論叢》第3輯, p. 54에서 “華西의 性理學을 氣보다 理를 우월시하고 있으며, 理尊氣卑의 관계로 풀이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理를 중심으로 하는 主理派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면암의 사상적 계보는 이황의 주리론적 입장에서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성리학, 사림파, 주리파(영남학파), 위정척사파, 의병 등의 順으로 이어지는 계보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주리파가 '理'를 중심으로 한 영남 중심의 학파라면, 주기파는 '氣'를 중심으로 한 기호(경기) 중심의 학파다. 그리고 주기론적 입장은 후에 실사구시 즉 실학사상 등을 통해 현실위주의 실용주의 노선이라면 주리론적 입장을 계승한 학파는 실용노선보다는 대의명분에 더 큰 가치를 둔다. 주기론적인 입장을 계승한 학파가 구한말에 개화파를 중심으로 한 서구문물을 수용하려는 서구 지향적 세력이라면, 주리론적인 입장을 계승한 학파는 위정척사파를 중심으로 기존의 재래적 사회속에서 대의 명분을 찾으려는 전통보수적 세력이다. 면암은 스승 이항로와 함께 서구 문물의 수용보다는 吾道의 붕괴를 비탄하는 등 기존의 재래적 질서를 지키려는 쪽이며, 주리론적 입장을 계승했다.¹⁴⁾ 이 대의 명분과 함께 주리론적 입장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도덕지상주의다. 현실적이고 물질적 가치보다는 도덕 등 정신적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다.

면암의 이러한 사상적 계보를 통해 그의 생애를 볼 때 불의에 대하여 비분강개하는 그의 행동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원군의 批政을 탄핵하고 부당한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의연결백함과 더불어 의병활동은 이러한 사상의 구체적인 표현인 셈이다. 설령 목숨은 내놓을지언정 대의명분에 어긋나면 한 치도 용서하지 않는 서릿발같이 꺾이지 않는 선비적 자세를 보인다. 그로인해 면암의 생애는 재래의 전통보수적인 도덕지상주의를 고수하려는 양상을 띤다.

면암의 이런 사상적 측면을 기초로 유배생활과 의병활동을 생애와 연관시켜 보면, 우선 면암이 제주도로 유배당한 것은 1873년(高宗 10년)의 일이다. 호조참판에 제수되었으나 사직소¹⁵⁾와 함께, 대원군을 탄핵하는 <五條大義>¹⁶⁾를 올린 것이 원인이

14) ① 金吉洛, 앞의 책, p. 53에서 “華西의 斥邪衛正論의 哲學的 理論根據는 主理論의 理氣說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p. 59에서 “면암 역시 스승 화서의 주리론적 이기설의 철학적 근거에 의하여 위정척사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② 尹絲淳, 앞의 책, p. 201에서 “한말의 대표적인 주리론자를 李恒老, 金平默이고, 위정척사를 부르짖으며, 창의운동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③ 金吉煥, <韓末 前後의 儒學思想>, <韓國思想의 深層研究>, 도서출판 宇石, 1982. pp. 254~256에서도 “이항로를 주리론자”로 보고 있다.

위 ①②③을 통해 볼 때 면암은 화서와 함께 주리론의 입장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다.

15) <辭戶曹參判兼陳所懷疏> 癸酉十一月三日.

16) 萬東廟 및 書院의 첩啓에 대한 비판, 國號의 伸雪에 대한 비판, 원남전 호전 등의 폐지, 國王의 親政, 王室宗親의 政事介入의 배격

되어 제주도로 유배당하게 된다. 대원군과 그 측근들이 면암이 王室骨肉을 이간시켰다는 이유로 엄벌에 처할 것을 주장함에 따른 것이다. 44세(1875년, 高宗 12년) 되는 해 조정에서는 일본과의 불평등적인 <한일수호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제주 유배에서 막 풀려나온 그는 이를 보고 비분강개하여 關門 앞에 나아가 5개항으로 된 斥和疏¹⁷⁾를 올리다가 흑산도로 유배당한다. 아울러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부당한 처사를 성토했다는 <寄日本政府書>를 보내면서 정읍, 순창, 곡성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벌이다 끝내는 대마도로 끌려가 ‘日人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 하여 74세(1906년)에 餓死 殉國한다.

면암은 구한말이라는 격변기적 시대상황, 문학적 소양의 명문 가문, 스승 화서의 영향, 주리파의 사상적 계보에 따른 영향으로 위정척사와 의병활동 등을 통하여 도학자적인 행동을 보임과 동시에 문인으로서도 자기 세계를 통하여 시세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주목할 만한 일은 면암이 吾道の 붕괴와 주체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吾道の 붕괴를 인식하고 있었기에 <단발령>반대 등 전통고수주의 입장을 지키려 했고, 주체성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불평등한 개항 반대, 義兵舉義¹⁸⁾ 등 냉엄한 국제 현실속에서 우리나라를 자주적으로 보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넓은 의미적 측면이며, 좁은 의미로는 주체성에 대한 인식이라기보다 吾道の 붕괴 등 성리학적 질서가 파괴되는 데 대한 비탄적인 인식이라고 봄이 더 적절하다.

면암의 생애와 시대적 상황, 유배 배경, 의병활동 등의 기초가 된 이러한 현실 인식은 그의 많은 시작품에도 투영된다. 면암의 한시를 보면, 유배지에서 쓴 한시들은 도학자로서의 기백과 울분의 양상, 한 인간으로서의 다정다감한 삶의 양상, 달인으로서의 자연 친화적인 양상 등으로 나타난다. 특히 의병활동을 하던 시기의 면암의 작품은 이 가운데서 이 현실 인식에 기반을 둔 기백과 울분을 주제로 한 시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면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작품에 나타난 ‘면암의 시세계’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17) <持斧伏關斥和議疏> 丙子正月二十二日.

18) 梁重海, <義兵精神과 韓民族의 主體性> - 勉菴 崔益鉉을 中心으로 - <韓國思想論叢> 第3輯, p. 215에서 “義兵舉義 自體를 主體性的 行動化”로 보고 있다.

Ⅲ. 勉菴의 詩世界

1. 勉菴의 文學觀

면암 최익현의 한시를 검토하기에 앞서 그의 문학관이 무엇이며 그 문학관이 어떻게 그의 작품속에 구현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일은 당연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면암은 같은 시대 한말사대가들이 문학관¹⁹⁾을 내놓은 반면에 이렇다할 문학관을 피력한 적이 없어 문학관의 근거가 되는 그의 철학과 사상, 작품을 통해 고찰할 수 밖에 없다. 면암의 문학관은 전체적으로 '達意論'과 '載道論'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성리학적 자연관과 더불어 그의 문학관이 작품속에서는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조선조 문학관의 대전제는 道文一致의 관념이다. 건국이념 자체가 성리학에 근거를 둔 이상 성리학의 문학관인 도문일치도 역시 자연스럽게 조선의 문학적 이념으로 수용되었다. 성리학의 근본사상을 고수했던 면암은 당연히 도문일치의 문학관을 가지게 된다. 道文一致란, 대체로 문장은 도를 담는 그릇이라는 전제위에서 일관성 있게 전개된 載道論이다. 이런 재도론적 문학관의 배경에는 宋代 성리학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조화로운 세계관 및 낙관적 인간관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도론에서 강조하는 道는 인간의 도덕적인 완결성을 지향하는 현세적인 규범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재도론은 이러한 도를 배타적으로 절대화시킴으로써 도가 지닌 규범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이러한 재도론은 현실에 가장 밀착되어 효용

19) 구한말 문인들의 文學論을 요약하면,

· 秋琴 姜瑋는 《姜瑋全集》의 〈成次蘭詩集序〉에서 '詩之至者不工而得'이라하여 秋史의 性靈說을 이어받아 性靈論을 수용함.

· 寧齋 李建昌, 《李建昌全集》上, p. 136 〈次韻答保卿〉의 詩에서 '孰知潤溪毛 可差王公宮 邇來學平淡 濁唱撫村醜'라 하여 性情을 이야기 하면서도 魚無迹과 丁茶山에 이어 현실 비판의 사회시를 정착함.

· 梅齋 黃玿, 《黃玿全集》〈答李石亭書〉에서 '不拘乎法而求得其意, 各因其所賦之才而成一代之文'이라고 주장하여 그의 문학론을 명확하게 내세웠다.

· 滄江 金澤榮, 《金澤榮全集》〈詩前社卷序〉에 의하면 당시 性靈論의 개성적 문학관을 바탕으로 당시의 法古 풍조에 創新을 내세우고 맞서는 종합적, 절충적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神韻論을 바탕으로 한 문학관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文學論을 종합하여 보면 대개 효용론으로 그 바탕을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론의 입장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문학의 구체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性悟之正과 같은 절대적인 척도를 내세움으로써 문학은 도의의 근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재도론적 문학관의 주류는 도학과 내지 사림과의 정치적 이념의 정착과 더불어 조선조 문학론의 주류가 된다. 재도론적 문학관의 주장과 논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역시 이퇴계와 이율곡이다. 그후 17세기로 접어들면서 宋時烈에게 이르러서 재도론적 문학관은 이전의 경우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 주게 된다. 송시열의 재도론적 문학관은 이 시기에 대두한 여러가지 사상적인 다양화의 경향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송시열의 경우에 이르러서 재도론은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7세기에 들어서서 엄격한 주자학의 사상체계를 견지해 나가면서, 특히 대외적으로는 명의 몰락과 淸의 등장, 안으로는 사상적인 분파와 병행한 치열한 당쟁으로 인하여 화이론적 질서관 및 예론이 사상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관념 뒤에는 주자학적인 명분론 내지는 정통론적인 의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17세기 이후에 있어서도 재도론적 문학관은 여전히 시대를 지배하는 문학관으로 군림하고 있었고, 이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문학사상에 대한 재도론의 반격 또한 치열한 것이었다. 사상적인 반론과 병행하여 등장하는 새로운 문학관에 대한 반격으로서의 재도론적인 반론과 문학관은 이퇴계나 이율곡의 경우보다 더욱 경화된 규범론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그러한 양상은 한말까지 계승된다. 한말의 華西 李恒老는 성리학의 傳學之統에 있어서 孔子一孟子一朱子一尤庵을 가장 정통적인 道學之統으로 계열화하고 이에 의거하여 우암을 주자학의 직접적인 계승자로 평가하면서 화서 자신의 사상적 단서를 우암으로부터 연결짓고 있다.²⁰⁾

이렇게 볼 때 화서의 학문적, 사상적 연원은 우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화서는 無師受이지만 우암 송시열의 학통을 계승한 사람이므로 면암이 화서에게 수학하였다는 맥락에서 결국 우암의 재도론을 화서가 계승하였다면 화서를 계승한 면암도 비록 그의 문학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재도론을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재도론은 달의론과 상통하며, 면암의 문학론은 재도론, 곧 달의론으로 볼 수 있다.

비록 면암이 이처럼 본격적인 문학관을 밝힌 글은 없지만 白序 등에서 단편적인

20) 李澤徵, 〈朝鮮後期 斥邪論議의 展開와 그 意義〉, 《朝鮮朝政治思想研究》 평민사, 1987), p. 167.

문학관이 언급되고 있어 부분적으로나마 고찰할 수 있다. 自序의 내용을 보면, “平仄이나 格式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대로 事實을 서술”²¹⁾ 한다고 하여 면암의 한시가 ‘격식’보다는 ‘사실’에 더 치중한 작품이 있다. 이것은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만 구비했을 뿐 어디까지나 達意爲主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면암의 達意論의 文學觀은 실용적 관점에 해당된다. 즉 한시가 수단과 목적의 매체가 된다는 뜻이다.²²⁾ 그러므로 작품이 독자에게 현실적으로 주는 효과를 전제하게 된다.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효과도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심리학적 효과이며, 다른 하나는 교훈적 효과이다. 여기서 면암은 후자쪽에 가까운 達意論의 文學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면암같이 성리학의 정통을 계승한 사람에게는 ‘意’는 결국 ‘道’이며 道는 성리학적 세계관의 핵심이며 성리학자의 질서관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면암의 한시는 공리적 입장에서 ‘載道’의 내용이 전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게 된다. 이것은 ‘Ⅲ’의 2, 3, 4절에서 고찰하기로 하고 다음 序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士君子의 文會와 講習을 어찌 山水나 읊조리고 風花나 감상하는 것 뿐이라고 말하겠는가”²³⁾ 라고 하여 면암의 문학관은 시대상황과 더불어 더욱 더 적극적인 실용적 관점, 공리성을 띠며, 道를 역설하게 된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문학이 自然之道로 자연의 진리, 법칙 등으로 완만한 역할을 할 수 없고,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역사적 소명이며, 면암은 이 소명을 위해 끝까지 載道論의 문학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그 시대에 대한 문인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 것이다. 吾道의 붕괴로 위기의식을 느낀 면암이기에 문학을 통해 守道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다만 면암의 한시가 재도론에 치우쳐 문학적 표현기교 및 정신적인 지적 쾌락을, 즉 문학성을 고려하지 않은 달의위주의 시로, 그의 한시가 평가 절하 되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그의 시문학 속에서도 삶의 道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연을 관조하고, 자연에 몰입하여 자연속에서 導眞하는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면암의 삶의 자세는 성리학이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며 면암이 추구하는 문학의 궁극적 목표라고 볼

21) 《勉菴集》卷之二, 〈日獄中默會五絶十四首〉의 序, “不拘廉格 信心叙實”

22) 李昇薰, 〈詩論〉, 고려원, 1988. pp. 30~39.

23) 《勉菴集》卷之十九, 〈洪原經學齊青衿錄序〉 “士君子于文會講習 豈但曰 嘲微山水繪 畫風花而已哉”

수 있다. 면암의 이러한 세계는 재도적 성격이 강한 시작품에서 뿐만 아니라, 自適, 脫俗의 시작품에서도 보여준다.

이상에서 면암의 문학관은 ‘達意論’ 곧 ‘載道論’의 文學觀임을 알 수 있다. 전형적인 유가사상의 사고방식인 聖賢의 道에 따라 도를 실천하고, 도를 찾고, 표백하는 정통적 주자주의에 입각한 재도적 문학관이다. 이러한 면암의 문학관은 작품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2. 氣魄과 鬱憤의 志氣

勉菴은 李恒老 문하에서 大義名分과 破邪顯正의 意識을 기저로 한 전통적 사상을 전수 받았다. 특히 丙寅洋擾(1866년, 高宗 3년)를 계기로 해서는 대외적 위기에 대응하여 衛正斥邪의 정신으로 憂國慨世하는 삶의 길이었다. 나라를 걱정하고, 道를 역설하고, 난국을 한탄하면서도 난국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나타낸다. 이것은 그의 도학자적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행동이었다.

이러한 면암의 기백과 울분의 志氣의 인면모는 그의 한시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그의 시세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으로 부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문학성 고찰이 만족할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 역사적 소명의식과 그의 전통론적 사상이 한시 작품에 용해되지 못하고 길으로 너무 드러나 문학성 쪽으로 승화되지 못했다는 평가 절하의 판단을 인정하더라도, 그의 한시는 철저한 작품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시각의 고찰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특히 가장 達意爲主라고 평가되는 기백과 울분의 志氣에 해당하는 작품은 새로운 시각의 연구가 요구된다.

憂時戀君, 載道, 氣概, 慨世, 教訓 등의 내용을 주로 하고 있는 면암의 시세계에서 그의 志氣는 松, 菊에 의탁되어 나타난다. 개화기에 서구의 세력과 일제의 압력이 더욱 가세화되고, 이에 대응하여 衛正斥邪의 사상으로 일관한 면암의 현실인식은 吾道의 붕괴에 대한 비분강개이며, 〈五亂亡〉²⁴⁾에서 보듯이 나라와 민족의 굴복과 핍박에 대한 투쟁일 수 밖에 없었다. 개화기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 그리고 내침을 당하고, 수호조약후 일본에까지 끌려가 수감을 당한 자신으로서의 현실인식은 疏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경색되고 격앙된 감정으로 한시에 투영될 수 밖에 없었다.

24) 〈持斧伏關斥和讓疏〉丙子 正月二十二日.

급박한 국가의 위기상황에 대한 우국시, 斯道를 지켜 전통질서의 붕괴를 경계하는 載道の 시, 松, 菊과 같이 꺾이지 않는 氣概의 시, 서구의 세력이 동양의 전통을 무시하여 정신적 위협에 대한 慨世의 시, 그리고 後學들에게 정신적 지주로서 가르침을 퍼는 教訓의 시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면암의 한시 세계는 그의 생애, 사상, 유배상황, 시대적 상황에 의해 조명됨으로써 더욱 뚜렷하게 밝혀질 것이다. 그러므로 한시의 고찰에서는 이점에 유의하게 될 것이다.

志士는 憂時戀君의 化身이다. 존폐위기의 사적을 지키고자 한 충정이 시에 나타나고 있다. 면암의 시 중에서 유배지에서 쓴 우국의 시는 志士의 면모를 가장 잘 대변하는 시로 알려져 왔다.

면암이 제주도에 처음 유배되어 쓴 〈掛弓軒次板上韻〉을 살펴 보면,

漢擎山一點	우뚝 솟은 한 점의 한라산,
積水渺茫中	아득한 바다에 떠 있구나.
愧乏元城操	원성 같은 지조 없어 부끄러울 뿐,
肯嫌屈子窮	굴자의 궁핍이야 어찌 흠이랴.
光迎蓬海月	밝은 빛은 봉해의 달을 맞이하고,
香襲橋林風	맑은 향기는 굴림에서 풍겨오네.
萬里君親遠	임금과 아버지 먼 곳에 계시니,
綠何馨素衷	한 조각 이 마음 어디다 바치오리.
遊遠男兒事	먼 곳에 노니는 건 남자의 일이라.
八荒赤室中	온 누리도 한 방안과 같도오.
北瞻天極迴	북을 바라보니 천국은 아득하고,
南渡地形窮	남쪽을 건너니 땅도 막다랠네.
百念都成水	모든 시름은 물같이 흘러가고,
一帆但信風	조각 돛을 바람에 맡겼어라.
巴翁當日事	파옹 ²⁵⁾ 의 그 때 일을 생각하면,
徒激後人衷 ²⁶⁾	후인의 가슴만 격분하게 하네. ²⁷⁾

25) 尤菴 宋時烈을 가리킴. 그가 巴串에서 살았으므로 파옹이라함.

26) 《勉菴集》卷之一, 〈掛弓軒次板上韻〉

27) 본 연구에서 勉菴의 한시 번역은 고전 국역 총서 《勉菴集》 I, 1986의 것을 따르면서, 너무 의역된 부분은 필자의 직역으로 보충했다.

면암은 高宗10년(1873년, 41세) 호조참판에 제수되었으나 이를 사직하는 상소 <五條大義>로 전에 다하지 못한 뜻을 펴게 되고, 그것을 빌미로 드디어三公의 탄핵을 받아 제주도에 위리안치 되었다. 제주도로 가는 도중 같은 해 11월 28일 梨津에 이르러 바람을 기다리고 있을 때 掛弓軒 현판에 쓰여 있는 시에 次韻한 작품이다.

여기서 면암은 자신의 지조를 宋의 元城 劉安世에 비하여 보잘것 없음을 부끄러워하고 임금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가 부족했음을 반성한다. 그러면서도 屈原의 속세에 물들지 않는 청렴결백함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이 나타난다. ‘萬里擘親遠 綠何素衷’은 유배된 부자유한 몸이어서 忠孝를 다하지 못함을 함축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후반부에서는 만리 밖으로 떠난 시름에 가득찬 유배인이지만 ‘遊遠男兒事 八荒亦室中’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시름을 물처럼 흘려 보낸다는 면암의 기개가 역설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러면서 파옹 송시열에 대한 불의에 격분하는 현실인식이 지사적 면모로 드러난다.

다음은 西勢東漸의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위정척사의 사상으로 우국충정이 나타나는 <偶吟>을 살펴 보기로 한다.

聖言千載也分明 세월이 갈수록 성인 말씀 더 분명하니,
 島戶猶聞讀字聲 섬 마을에도 글 읽는 소리 들려오네.
 可惜滔滔名利窟 가여워라 저 수없이 날뛰는 무리들,
 每緣身計國憂輕²⁸⁾ 제 몸만 알고 나라 근심 몰라주네.

유배살이 하는 동안 세월이 가고 나라는 더욱 혼란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면암은 더욱 우국의 정열을 갖게 된다. 이러한 그의 정신은 村童을 대하여 聖賢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멀리 물 밖의 일을 걱정하고 있다. 七絶로 된 이 시에서 起·承과 轉·結의 극단적 대조를 통하여 암울한 시대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적절하게 표현했다. 이러한 극단적 대조의 표현은 유배의 상황이 아니고서는 기능하지가 않는다. 그러므로 유배의 상황에서 면암의 위치와 목소리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斯道가 墮落하여 名利窟들이 자신의 광영만을 위해서 나라의 존폐는 생각지도 않

28) <勉菴集> 卷之一, <偶吟>

고 서구의 문물의 유입이며, 邪學의 도래를 유인하는 광란에 빠져 있음을 면암은 海村의 아이들을 보면서 더욱 분개했음을 말해 준다. 그래도 면암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아이들에게 가르쳤을 것이다. 이러한 면암에게서 기울어진 斯道에 대한 哀切함을 알 수 있으며 우국에 대한 丹心을 알 수 있다.

이때가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되던 해이고, 門戶를 개방하자는 주장과 폐쇄하자는 주장이 열띤 논쟁을 벌여 어지러운 국내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면암의 위기의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西勢에 대한 비판이 강렬한 우국시이면서 載道의 내용을 담은 시를 살펴 보겠다.

千年傳授訣	오래 전해 오던 우리 도가,
那料一朝翻	일조에 반복될 줄 누가 알았으리.
忍迎魚鬼賊	어찌다가 어두 귀면의 적을 맞아들여,
出入帝王門	우리 궁궐에 출입하게 한단말가?
聖心豈若此	이것이 어찌 임금님 마음이라,
歎息欲無言	슬프고 슬퍼 나는 말 없을 밖에.
佇見天行處	오직 천리가 있는 곳에는,
釋陽始自坤	어두운 밤에 여명이 오리라.
只嘆西洋教	되잖은 서양의 교가,
能令四海翻	세계의 물결을 뒤집고 있네.
一片吾東地	한 조각 우리 동방 땅에는,
尙由道德門	아직도 도덕을 지켜 나가네.
卒然黃江輩	난데없는 黃潛善과 江伯彥 같은 무리들이,
攘臂戰公言	옳은 말에 도전하고 있네.
福威雖自力	비록 화복은 제 힘으로 한다 해도,
獨不畏乾坤	오직 하늘과 땅이 두렵지 않은가?
人性生來直	사람은 그 천성이 곧은 것인데,
緣何覆更翻	왜 반복하기를 좋아하는가?

捨却芝蘭室 자기의 좋은 집을 버려두고,
 護尋枳棘門 무단히 험한 곳을 찾고 있나?
 服儒嗟僞飾 모두가 허식이요,
 衛聖但空言 성인을 위함도 빈 말 뿐.
 須知君子道 참으로 군자의 도는,
 易簡法乾坤²⁹⁾ 간이하여 건곤을 법받았다네.

여기서 면암은 전통적 가치체계를 고수하는 것과 군자의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격변기 구한말의 시대상황을 통해 상징적 비유와 면암의 가지고 있는 언어를 통해 시의 구조로써 승화시키고 있다. 五律 三首로 된 시의 구성에서 첫째 수 首聯 ‘傳授訣’과 ‘一朝翻’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우리의 도가 하루 아침에 뒤집혀 버리는 시대적 상황, 즉 강화도조약 이후 일본과 서구의 무질서한 난입을 상징적 비유로 표현했다. 그러므로 魚頭鬼面之卒로 표상되는 외세가 帝王門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현실, 즉 국가의 기강과 한 국가를 지탱하는 道가 무너진 현실을 ‘無言’으로 한탄하고 있다 그러나 天行이 있으면 반드시 역명이 오리라고 믿는 마음은 仁義의 道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寄日本政府〉라는 책에서 보면 “아, 나라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천성이요, 믿을 지키고 義를 밝히는 것은 道입니다. 사람에게 이 천성이 없으면 반드시 죽고 마는 것이요, 나라에 이 도가 없으면 반드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³⁰⁾ 라고 道에 대해서 역설하기도 했다.

여기서 면암은 현실상황을 직시하고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대의 아픔과 자신의 아픔을 일원화하여 ‘忠國’·‘明道’한 참된 선비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선비의 모습과 ‘明道’의 모습은 〈漫成〉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西氣驕白日 서쪽 기운이 대낮에 기승을 부리니,
 斯道一何孤 우리 도는 어찌 이렇게 외로운가?
 容易迷寰宇 온 세계를 미혹하기 쉽고,

29) 《勉菴集》卷之一, 〈傷時〉

30) 《勉菴集》卷之十六, 〈寄日本政府〉, “嗚乎 忠國愛人曰性 守信明義曰道 人無此性則人必死 國無此道則國必亡”

居然穢版圖 이 땅도 벌써 더러웠구나.
 蹶天難白擎 기울어진 하늘을 괴기 어렵고,
 危廈更誰扶 위태한 집 누가 다시 붙들까?
 先聖垂遺訓 옛 성인이 교훈을 남겼으니,
 修明但在吾³¹⁾ 밝히는 것은 오직 나에게 있네.

五言律詩로 된 達意爲主의 詩로 ‘蹶天’과 ‘危廈’라는 말로 당시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西氣’에 의해 힘없이 무너진 ‘斯道’를 지켜야 한다는 급박한 위기의식이 들어있다. 면암이 흑산도에 유배되기전 上疏³²⁾의 내용을 보면, 邪學의 도래로 말미암아 조선조의 전통질서인 三綱五倫이 무너지고, 衣裳 즉 예의가 시궁창에 빠져 인류는 禽獸가 된다고 강화의 부당함을 목숨을 걸고 반대했었다. 그러나 이 일로 해서 자신은 흑산도로 유배되고, 유배지에서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한 그의 의식이 더욱 고조되어 이 시에 나타나고 있다. 頸聯과 尾聯에서 무너진 仁義의 道를 ‘蹶天’에 의세로 위태로운 나라를 ‘危廈’에 비유하여 면암은 오직 聖賢의 教훈을 새겨 蹶道를 修明하는 중차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를 실천하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그의 志氣의인 선비의 자세이며, 그의 시세계를 지배하는 삶의 모습이며, 면암 한 시를 대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吾道가 무너지는 현실을 통한하는 울분과 기백의 지기적인 모습은 그가 만년에 의병운동으로써 최후까지 선비의 모습을 잃지 않았고, 대마도 수감 중에 쓴 <同囚諸君>에서는 또 다르게 표출되고 있다. 이 시를 보면

捲地西風俗尙移 서양 바람이 몰려 와 우리 풍속을 옮겨,
 毀形裂冕此何時 머리 깎고 갓 찢으니 이 어느 때뇨.
 繼冠依倣宣尼制 치포관은 공자의 제도를 의방 하였지,
 動止徒今可用儀³³⁾ 동지할 때 반드시 예의 갖추기를.

이 시는 광무10년(1906년, 74세) 7월 대마도에 수감된 囚人 여럿이 冠이 없어 상

31) 《勉菴集》卷之一 〈漫成〉

32) 註17의 疏

33) 《勉菴集》卷之二, 〈同囚諸君大半露髻動使各製幅布冠以著之〉

투바람으로 있어서 면암이 道와 禮를 상징하는 冠을 만들어 쓰기를 중용하며 쓴 시다. 비록 巽域 땅에 끌려 온 처지이면서도 자신의 志氣的인 면모를 잃지 않으려는 선비의 자세가 드러나고 있다. 치포관은 검은 베로 만든 유생이 쓰는 관으로 공자의 제도를 依倣한 것이다. 高宗 32년(1895년) 단발령에 대해 정면으로 맞섰던 그가 머리깎고 갓 찢는 현실을 개탄하며 예를 갖추기를 당부하고 있다.

면암의 이러한 시들은 문학적 형상화가 잘 되어 있는 편은 아니다. 개화기 한시, 위정척사파의 한시, 면암의 한시를 거론할 때마다 그 문학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시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면암의 自序³⁴⁾에도 밝혔듯이 그 자신의 심회를 성공적으로 시화하는데 마음을 기울인 사람은 결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암의 이러한 시는 문학성이 결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道學이 위기에 빠져, 이를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했던 그에게 있어 어찌면 시적 형상화는 일종의 사치였는지도 모른다.

다음은 불굴의 의지로 꺾이지 않았던 氣概에 대해 살펴 보겠다.

旅榻無窮趣	나그네 창에 한없는 취미는,
疎松隔水端	성긴 솔이 물 건너 서 있구나.
浸淫山海氣	산과 바다 기운에 함초롬히 젖고,
沐浴雪霜寒	차가운 눈서리로 멍을 감누나.
一節難移志	한결같은 절개라 뜻 옮기기 어렵고,
百年不改顏	오랜 세월에도 본색을 바꾸지 않네.
愛看三兩鶴	그래도 몇 마리 학이 있어,
時帶下風還 ³⁵⁾	때로 이 곳을 찾은 것이 고마와라.

혹산도 유배지에서 古松처럼 곳곳하게 서 있는 자신의 氣概를 표백한 시다. 특히 頸聯의 ‘一節’은 그의 의지와 신념의 굳건함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자신의 한결같은 절개는 다르게 뜻을 옮길 수 없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자신의 氣概를 알아 주는 사람이 없어도 절망과 고독에 빠져 들지 않고 ‘百年不改顏’의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 尾聯에서는 자신의 절개를 알아 주는 대상을 鶴으

34) 《勉菴集》 卷之二, 〈日獄中默會五絕十四首〉의 序 “不拘簾格信心紱實”

35) 《勉菴集》 卷之一, 〈古松〉

로 표현하여 ‘학이 찾아주는 것’으로 의인화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이 한데 어울어져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이 ‘소나무’에 무리없이 비유되어서 시로 승화된 작품이다. 앞에서 논의한 〈同因諸君〉과 비교하면 시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 내용이 매우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비록 면암 시 대부분이 그의 斥邪思想을 전달하려는 방편이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시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을 만족시키는, 즉 문학성이 인정되고도 남는 작품이 다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首聯에서의 ‘松’이 면암 자신을 의인화한 것이라면, 頷聯에서 ‘젓고’의 주체는 ‘松’이면서 면암 자신이 된다. 마찬가지로 ‘沐浴’의 주체도 면암 자신이다. 여기서 ‘浸淫山海氣’와 ‘沐浴雪霜寒’은 면암 자신에게 주어지는 암울한 시대상황 속에서 자신의 기개를 나타내고 있다. 古松과 鶴은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로 부각되면서 서로의 이미지가 대조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 이미지속에 포함되어 節概와 선비를 의미하는 상징을 이룬다. 이렇게 볼 때 이 시의 주제가 내면으로 숨어 있으며, 그것은 참다운 선비의 백절불굴의 지조와 기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전통적인 자연물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는 시는 면암이 흑산도 유배에서 쓴 〈黃菊〉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住色兼清馥 빛깔도 좋지만 향기 더욱 좋아,
 端宜處士培 참으로 처사가 가꿈직하네.
 羞同桃李節 봄꽃과 같이 피길 부끄러워하여,
 遲向九秋開³⁶⁾ 늦게야 가을 하늘에 저 홀로 피네.

黃菊은 霜雪과 北風에도 傲霜孤節을 지키는 꽃이다. 위에서 고찰한 〈古松〉과 함께 松菊猶存으로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志士가 있음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詩題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다. 외딴 흑산도에서 자신을 봄에 피는 화사한 꽃, 桃李와 대비하여 黃菊에 비유하고 있다. 송순의 시조 〈自上特賜黃菊玉堂歌〉에서도 桃李와 黃菊에 대비하여 지조있는 심정을 나타낸 바 있다. 轉句에서 ‘羞同’은 ‘黃菊’의 속성을 말한다. 그러므로 황국에 감정 이입된 면암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斥

36) 〈勉菴集〉 卷之一 〈黃菊〉

邪와 開化 사이에서 외세의 힘을 빌어 등장한 개화파는 君이 바로 설 때는 가장 화사한 모습으로 君의 충명을 기리고, 개항이 된 후에는 나라와 민족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을 좇아 自存을 버린 存在들이다. 그런 면에서 結句는 면암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면암은 더욱 더 자신의 기개를 확인하게 된다. 松과 菊을 빌어 자신의 백절불굴, 선비의 지조를 역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뜨거운 눈물의 慨世의 내용을 읊게 된다. 흑산도 유배시 知音 金平默의 詩에 次韻한 작품을 살펴 보겠다.

嶺海年年雨露均	아득한 이 땅에도 임금 은혜 오시니,
濱危殘喘敢言還	실낱 같은 이 생명 돌아가길 바라리.
看書要識從違別	글 읽을 땐 선과 악을 분별하고,
臨事須分夢覺關	일 당할 땐 밝고 어둠을 알아야지.
懷利來時生死辱	이욕에 빠지면 생사가 모두 욕이요,
循公去處古今閑	공정한 곳엔 고금이 한가하네.
北風萬里家何在	만리 찬 바람에 내 집은 어딘가,
回首鯨濤浩渺間	험악한 파도 밖에 머리나 돌려 볼까.
居官居謫庇身均	삶엔 영육이 똑같고,
一苦一甘自往還	고락은 돌고 도는 것.
奇觀再過千里海	좋은 구경은 먼 바다로 또 가고,
孤衷常結九重關	외로운 충정은 구중의 관문에 맺혔네.
聖心宵旰臣鄰仗	임금님은 소의간식하며 신하들만 기대는데,
廟算淒涼酒肉閒	조정엔 제책 없어 주욕으로 한가하네.
聞道東槎迎賊至	듣건대 우리 사신 왜적을 영입한다지,
此名應在死生間 ³⁷⁾	이것이 죽고 사는 기회가 아니런가.

면암이 高宗13년(1876년, 44세) 2월 16일에 소흑산도에 도착하자 重菴 金平默이 시를 지어 보내왔다. 그 시는 다음과 같다.

37) 《勉菴集》 卷之一 〈次重菴金丈寄示韻〉

有才無命楚靈均	재주 있고 운 없기는 초나라 영균인데,
再放沅湘幾日還	두번째 바다 귀양 어느날 돌아오리.
寒海移山驚四國	힘겨운 일 하다가 사방을 놀라게 했는데,
浙矛炊劔閩重關	위험한 고비 겪으며 중관을 지났도다.
四溟消息鯨鵬近	서해의 소식은 경봉과 가까이 지내고,
北闕文章鶴鷗閑	궁궐의 官班에는 문장하는 이 없어라.
天外孤臣數行淚	하늘 밖 고신의 두 줄기 눈물이,
化爲春雨澤人間 ³⁸⁾	봄비되어 인간에 흠뻑 뿌려 주겠지.

중암의 시에서 면암의 君에 대한 충성과 문장의 뛰어난, 그리고 인간애를 읊은 시다. 여기서 그는 면암이 제주도에서 흑산도에 다시 유배된 처지를 참소를 받아 疏遠된 屈原에 비유하여, 知답으로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尾聯에서 ‘春雨’로 면암의 따뜻한 인간애를 말해주고 있다.

위의 시에 대하여 차운한 면암의 작품에서는 거둬 방축을 당한 처지이면서도 임금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자학하지 않고, 淸과 濁을 함께 포용할 수 없다는 굳은 신념을 보여주고 있다. ‘廟算淒涼酒肉間’과 ‘聞道東槎迎賊至’에서는 시대적 아픔을 혼자 겪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렇게 면암은 세상을 개탄하면서 우국충정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慨世의 시에서는 기개에서 松, 菊에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백절불굴의 기개를 표백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감정이 격앙되어 ‘此名應在死生間’에서 볼 수 있듯이 극단적인 ‘死生’을 나타내어 비참한 시대상황을 격분하면서 우국충정을 토로하고 있다.

면암의 기백과 울분의 志氣에서는 시대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대부분 면암의 현실인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 면암이 제자에게 준 시이거나 답시 즉 教訓의 내용인 작품에도 그의 사상과 시대상황에 대한 현실인식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제자 道謙 朴海量에 답한 시를 살펴보겠다.

38) 《勉菴集》附錄 卷之二

人心有好惡	좋아하고 미워함은 사람마다 있는 것,
向背乃其常	쫓고 반대하는 것이 곧 떳떳한 일.
麟經垂鉄鉞	인경은 도끼같이 엄숙했고,
閩史判陰陽	민사에는 음과 양을 판단했네.
云何奈毗子	어이타 큰소리 하는 자들은,
喋囁訟倭洋	왜놈과 양놈의 시비가 분분한가.
一得宜詢薨	하나라도 얻자면 순요가 마땅하고,
衆口且觀鄉	여러 사람 말에는 또 관향할레라.
孤臣耿不寐	외로운 신하 잠 못 이루니,
堪嗟國本戕 ³⁹⁾	나라 기초 무너질까 슬퍼하네.

道謙 朴海量은 면암이 제주에 위리안치 되었을 때 제주에 들어가서 제자의 예를 닦았다. 면암이 해배되어 고향 포천으로 돌아온 뒤에도 제자의 예를 갖추어 돌아가지 않고 머무르며 온갖 고생을 겪으면서도 학문에 힘썼다. 또 흑산도에 위리안치 되었을 때도 따라가 성심으로 섬겼던 인물이다. 이 시는 흑산도 유배지에서 道謙의 시를 받고 그에 화답한 시로 그중 교훈적인 내용을 읊고 있는 부분이다. 사람에게는 好惡가 당연히 있는 것, 옳음을 따르고 그름을 반대하는 것은 떳떳한 일이다. 麟經⁴⁰⁾은 鉄鉞 같이 엄숙하고 閩史⁴¹⁾에는 음과 양을 판단했다. “어찌 毗子들이 倭·洋의 是非非非에 분분한가. 무지한 나무꾼을 통하여 알 수도 있고, 모름지기 바른 정치는 衆人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면암은 잠 못 이루며 나라 근본 무너질까 슬퍼하고 있다. 여기서도 면암의 기백과 울분의 志氣的인 면모가 잘 드러나고 있다.

면암의 시세계에서 기백과 울분의 志氣的인 면모는 憂時戀君, 載道, 氣概, 慨世, 教訓 등을 읊은 그의 한시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같은 시대 지사형 문인 姜瑋, 李

39) 《勉菴集》卷之一〈酬朴道謙〉

40) 《春秋》의 別名, 孔子가 노나라 哀公 14년 봄에 남쪽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기린을 잡은 것을 보고 그 글을 마쳤다가하여 麟經이라 함.

41) 朱子의 《通鑑綱目》

建昌, 金澤榮, 黃玹 등의 한시보다 더욱 더 기백과 울분에 찬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면암이 그들에 비해 구체적인 문학론이나 시론을 배경으로 시작을 했다가 보다는 ‘文以載道’를 주장하는 古文精神을 바탕으로 시작에 임했고, 사상을 시에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실천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암이었기에 더욱 굳은 의지가 그의 작품에 반영될 수 밖에 없었다고 본다.

기백과 울분의 志氣的인 시세계에서 면암의 사상과 시대상황에 대한 현실인식이 뚜렷하게 한시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했다. 개화와 척사의 모순적 시대상황에서 의연히 척사로써 전통질서를 고수하려는 위정척사 사상은 면암의 전 생애를 통해서 관류하던 대표적 사상으로 몸소 행동으로 실천했다. 이러한 사상은 또 이 시세계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 시세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載道의 내용을 읊은 시에서도 전통적 성리학의 문학관을 계승했음도 살펴 보았다. 이런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기백과 울분의 志氣的인 면모는 면암 한시를 대변하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고 보아야 하겠다.

반면, 문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시세계에 속하는 많은 작품이 생경한 언어와 감정에 너무 치우쳐 인정을 받기 어려운 면도 있다. <古松>에서 살펴 보았듯이 격변하는 시대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자연물에 자연스럽게 이입되고 ‘松’, ‘雪霜’, ‘鶴’의 상징이 시 전체를 압도하면서 ‘浸淫’과 ‘沐浴’의 표현을 통해 시의 긴밀한 구성을 이루어 그 문학성이 인정되어야 함도 살폈다.

3. 日常과 情感的의 詠懷

면암의 기백과 울분의 志氣的인 면모도 日常의 한 인간으로 돌아와서는 눈물과 안타까움의 정서를 진솔하게 읊게 된다. 강직하고 빈틈없는 면암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시에 있어서 내면으로 숨겨 있던 인간성을 드러내어 아비이자 이웃이면서, 친구로서 日常的 情感을 詠懷하는 면모를 나타내 보인다.

면암의 시세계에서 한줄기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는 여기서는 유배지에서 情恨, 述懷, 自歎 등의 내용을 표백하고 있다. 면암은 개화와 척사로 대립된 모순의 시대상황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유배의 공간과 외국까지 끌려가서 수감되었어야 하는 특수한 체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그의 체험은 그의 시에서 특이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조선조 유배 한시에서 나타난 ‘身上歎’·‘戀君’·‘隱遁逃避’·‘自

然愛'·'憐憫'·'懷鄉'·'無常'·'慨世'·'別恨'·'懷古'·'哀訴'등에서 詠懷의 情感을 읊고 있다. 그리고 哀愁와 感傷으로 일관되고 있다.⁴²⁾ 유배지에서 자신의 고독하고 외로운 심정을 아무런 제어없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유배는 당쟁으로 인한 유배 즉 두 세력간의 대립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와는 달리 면암에게 있어서는 국내의 모순, 서구 세력과의 대립을 통한 유배였기에 이전의 양식과는 그 배경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면암의 선비정신과 만나면서 혼 혼한 정이 넘치고 哀愁와 感傷에 빠지는 등 나약하기까지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日常과 情感의 詠懷의 시세계에서는 인정, 연민, 별한 그리고 통한 등의 情恨이 표백되고, 회고, 회향, 향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유배된 자신을 우회적으로 한탄하는 自歎의 내용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면암의 한시에서 다음에 고찰할 '自然과 交遊의 空間'과 더불어 대체로 문학성이 인정되는 秀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그 문학성을 고구해야 할 것이며, 그런 바탕으로 사상과 유배상황, 특수한 체험 등이 시대적 상황에 대한 현실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 지 고찰되어야 한다. 日常과 情感의 詠懷는 면암에게 있어서 작은 어느 하나라도 그대로 지나쳐버리지 않은, 작은 일 하나에서도 시적 감흥을 일으킨 시인의 자질을 발견하게 된다.

면암이 흑산도 유배지에서 新年을 맞이하여 읊은 시에서, 백절불굴의 기개와는 달리 눈물을 보이고 日常人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 인간으로서 면암은 다정다감한 벗이며 이웃이었다. 그의 〈新年得韻〉을 살펴 보면,

春生料理舊岐尋	새 봄에 다시 옛 길을 찾자 하니,
只恐風雲霧作陰	구름아 그늘 가리지 말아다오.
隨命置身無惡境	몸을 운명에 맡기니 악한 지경이 없고,
懷仁接物總知音	인으로 물을 접하니 모두가 지음이네.
扶傾罔恃時人手	기운 것을 붙잡는 데는 어찌 남의 손을 믿으랴?
悔禍將看上帝心	화를 뉘우치면 하늘의 마음을 장차 보리.
最是長江寒雨裏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은 긴 강 찬비 속에,
不堪送子淚沾襟 ⁴³⁾	그대 보내는 눈물이네.

42) 梁淳瑛 〈朝鮮朝 流配文學 研究〉 - 濟州島를 中心으로 - 建國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1982. p. 90.

43) 〈勉菴集〉 卷之一 〈新年得韻〉

이 시는 유배지 흑산도에서 비운의 나날을 보내면서 가슴 아픈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忍苦가 잘 나타나 있다. 首聯에서 ‘春生料理舊岐尋’은 解配되길 바라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고, ‘只恐風雲霧作陰’은 언제 해배될 지 모르는 암담한 현실을 ‘風·雲·陰’으로 비유하여 시대상황과 자신의 심정을 표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頷聯과 頸聯에서는 새해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기약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슬픔과 지난 과거에 대한 애끓는 회한이 면암의 가슴을 애답게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아픔이 尾聯에 와서 ‘最是長江寒雨裏 不堪送子淚沾襟’이라 하여 절정을 이루고 있으며 면암의 감정이 가장 고조되어 깊은 애수에 젖어 들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寒雨’와 ‘淚沾’이란 시어가 자연스럽게 맺구를 이루어 情恨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반면에 면암의 이러한 개인적 정한은 민족적 정한과 희망으로 확대되고 있다. 頸聯에서 ‘扶傾’은 단순히 면암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개화기 일제와 서구의 세력으로 무너져가는 斯道를 말한다. 그러므로 首聯에서 ‘舊岐尋’은 면암 자신의 해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風雲’은 동적 이미지로 일제와 서구의 세력으로 ‘陰’ 즉 개화기 암울한 시대상황을 결정하는 주체가 된다. 이렇게 고도의 상징을 통해 면암의 한시는 개인적 정서에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서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면암 한시는 조선조 유배 한시에서 일반적 특징으로 나타난 哀愁와 感傷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와같은 확장 때문이다.

그러므로 尾聯에서 면암이 흘리는 눈물도 哀愁와 感傷에 빠진 눈물일 수 없다. 知音을 보내면서 문득 북받쳐오르는 慨世의 눈물로 확장되어 지고 있다. 이렇게 면암 개인의 정한이 확대되어 민족의 정한으로 승화되는 것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연민의 정이 나타나는 〈黑山叙懷〉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僻地誰憐楚客悲	벽지에서 누가 내 슬픔을 알리,
邂逅今日感親知	우연히 만난 그대가 참으로 감사하네.
石田未半當年食	돌 밭엔 일년 양식의 반도 안 되고,
海艦平看萬里危	바다 배는 만리에 위태함을 보겠네.
佛馬殘形迷往跡	불마의 옛 형상은 지난 자취 아득하고,
絃歌餘俗問前期	현가의 남은 풍속은 장래를 묻더라.
人情分合於斯別	사람의 마음 갈리고 합하는 것이 여기서 달라지니,
請亂離騷一曲詩 ⁴⁴⁾	슬픈 한 가락 시나 읊조리세.

44) 《續集》 卷之三 〈黑山叙懷〉

高宗 15년(1878년, 46세) 7월에 멀리 咸平에서 유배지 흑산도에 찾아온 智藏齋 金勳을 만나 회포를 노래한 작품의 일부다. 金勳의子是子元, 관향은 光山으로 咸平 紫陽山 아래서 살았다. 견문이 넓고 학식이 많으며 당대 여러 儒賢들과 從遊하였다. 일찌기 면암의 풍모를 사모하여 흑산도에 이르러 더불어 학문을 강론하고 시를 논하면서 수십 일을 함께 지냈다. 이 때 면암은 그를 知己로 허락하고 시를 주고 받았다.

이 시의 시상의 전개를 보면 首聯에서 고독하게 벽지에서 슬픔으로 보내는 중에 知己의 만남을 감사하고, 頌聯에서는 흥년이 든 유배지의 村民에 안타까운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海艦'을 등장시켜 풍전등화 같은 나라에 대한 깊은 우국의 마음으로 확대된다. 頸聯에서는 면암의 현실에 대한 인식, 오랫동안 정신적 지주가 되어왔던 佛馬가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絃歌의 남은 풍속도 장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을 통하여 비극적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마지막 尾聯에서는 더욱 감정이 고조되어 슬픈 노래 한가락에 자신의 시름을 담고있다. 七律인 이 시는 知己가 찾아와서 동병상련의 정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있으나, 곧 연민과 우국으로 전환되고 만다. 頌聯에서는 시대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佛馬'와 '絃歌'를 등장시켜 개인적 정서에 머물지 않고 민족의 위기상황에 대한 시상 전개로 확대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尾聯에서는 흑산도까지 유배를 당하여 어쩔 수 없는 자신을 한탄하면서 슬픈 노래 한가락으로 눈물을 토해내고 만다.

면암 한시에 있어서 前代의 유배시에서 보이는 哀愁와 感傷에 빠지지 않는 것은, 면암 자신이 눈물과 한탄, 자탄 등을 표백하면서도 그 근저에 우국이라는 깊은 뿌리로 시의 기동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日常과 情感의 詠懷라는 시세계에서도 기본 바탕은 앞에서 고찰한 시세계와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면암의 정신, 선비 정신에서 비롯되는 시세계의 한 주류로 파악된다.

이런 측면에서 <祚兒告歸倉卒口號>를 살펴 보면, 日常과 情感의 詠懷의 시세계가 단순히 독립된 것이 아님을 뚜렷하게 확인해 준다. 자신의 아들에게 내린 이 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海色蒼茫曉氣寒	바다 빛은 창망한데 새벽 기운 차가우니,
此時去住兩情難	이 때 가고 남는 그 인정 정말 어렵구나.
吾生伸屈天惟在	나의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있을 뿐,
勉使家人笑語寬	집안 사람들 아무런 걱정 말라고 하라.

광무 10년(1906년, 74세) 9월 4일 맏아들 永祚가 문인 吳鳳泳, 林應喆과 동행하여 대마도 유배지에 들어와 뵈었는데, 병든 老父의 모습을 보고 대신 감금되겠다고 했으나 그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월 8일에는 永祚가 老父를 모시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자 면암은 집에 노인이 있고,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맡을 사람이 없으니 돌아가도록 타일러 돌아갈 때 읊은 작품이다.

의병장으로서 왜적과는 싸움도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이국땅 대마도에까지 잡혀 오게 되었다. 이제는 죽고 사는 것을 오직 하늘에 있다는 담담한 마음으로 家人들에게 家間事를 당부하는 초연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七絶로 된 이 시는 日常과 情感的의 詠懷의 시세계에서 보기 드문 志氣的 성격을 지닌 내용의 시다. 비록 永祚를 달래려는 작자의 애통한 마음이 내면에 차 있겠지만, 그 감정을 삭이는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가 드러나고 있다. 유배지까지 찾아온 아들과의 만남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아들을 돌려 보내면서 슬픔이 절정을 이루었을 것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비정하리만큼 냉정하게 돌아서는 면암의 면모는 達人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轉句에서 보이는 면암의 자세는 체념이 아니라 삶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며, 유배 상황에서 오는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자기 수용이며, 그의 투철한 사상에서 오는 극한의 인내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휴머니티를 간직한 한 인간으로 돌아온 면암의 한시, 즉 풍부한 체험을 통한 개인적 정서가 상당히 문학성을 내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는 자신의 뜻을 아무런 문학적 표현을 빌지 않고 達意爲主로 심회를 서술하고 말았다. 면암 한시에서 가장 문학성이 두드러진 이 시세계의 작품에서는 예외의 작품으로 남는다. 이것은 '吾生伸屈天惟在'에서 살폈듯이 다분히 志氣的인 性格을 표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한시 대부분이 우국과 지기적인 면모를 바탕으로 두면서도 <初月>에서는 멀리 타향에서의 고향에 대한 슬회가 진솔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그의 작품은 같은 시대를 막론하고 전·후시대에서 보기도문 思鄉이 비유적 표현으로 그 문학성이 인정되고도 남는다.<初月>을 살펴 보면,

誰將崑玉削如鉤 누가 옥을 깎아 갈고리같이 하여,
掛在雲霄萬里頭 저 먼 하늘에 걸어 두었는가?

依儻淡影侵虛室 맑은 그림자 빈 집에 들어오니,
異域孤臣謾賦秋⁴⁵⁾ 먼 타향에서 부질없이 가을을 읊네.

七絶로 구성된 이 시는 고도의 상징과 비유가 서로 이어져 면암 한시의 白眉라고 볼 수 있다. 면암 한시의 제목이 대부분 길어 시의 내용을 대강 짐작할 수 있다. 면암 한시 특징 중 제목에서 한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된다. 여기의 주요 제재를 보면 ‘初月’, ‘萬里’, ‘依儻淡影’, ‘虛室’ 등이 모두 ‘孤’의 이미지로 집약된다. ‘依儻淡影’은 면암 자신을 나타낸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初月’이 그 직접적 원인이 된다. 그러나 면암 자신이 ‘依儻淡影’이 되어야 하는 내면적인 의식은 ‘萬里’가 그 직접적 원인이 되며, 이것은 곧 이역만리 홀로 지내야 하는 마음을 ‘依儻淡影’이라는 상징을 통하여 고독을 표현했다. 이러한 고독의 이미지가 ‘虛室’과 만남으로써 고독의 극치를 표현해내고 있다. 결국 結句에서 ‘孤’와 모두 만나게 되는데 면암 한시에서 이렇게 문학성을 보이는 작품도 흔하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 ‘孤’도 한 개인으로 돌아온, 완전하게 독립된 고독이 아니라 신하로서의 고독이란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개인의 情感을 솔직하게 표백하면서도 일국의 신하로서의 자세는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집약된 ‘孤’는 우국하는 신하로서의 고독이며 끝내 애수와 감상에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하는 면암이 아니라, 懷鄉의 情을 고독한 심정으로 읊고 있으면서도 자세를 바꾸지 않는 면모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면암시에서의 이러한 술회는 감상이나 애수에 더문 조선조 유배 한시와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조선조 당쟁으로 인하여 유배를 당하게 되는 유배인들도 우국을 읊었고, 호연지기를 그들의 시에 표백했다. 그러면서도 술회의 내용에서는 自歎으로 하여 애수와 감상에 젖고, 비탄으로 유배의 정한을 표백하고 있다. 면암 한시 〈初月〉이 다른 작품에 비하여 문학성이 돋보이는 작품임을 언급했다. 그러면 이런 면암 한시가 갖는 특징은 어디서 연유하는가 하는 문제가 쟁점으로 남는다. 이 쟁점을 위해서 ‘Ⅱ. 생애와 시대배경’에서 이미 고찰했듯이 위정척사사상과 문학론의 입장에서 도 재도론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면암의 문학적 자질이다. 면암의 소에서 살펴 보면 그 문장이 정연하여 명문인 것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으로 보면 면암의 문학적 자질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詩作에서 소를

45) 《勉菴集》卷之一 〈初月〉

쓸 때와 같은 정성으로 임했다면 면암 한시의 문학성은 더 그 의미가 컸으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면암의 문학적 자질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시작태도가 달의 위주의 자세로 ‘信心敍實’하여 그 문학적 자질이 그의 작품에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고, 〈초월〉에서 고찰했듯이 작은 사물 하나에도 마음을 움직여서 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자질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한시의 근거는 우국이라는 것을 제외시키지 않는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개화기 한시가 대부분 우국의 배경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도, 면암처럼 척사로 일관한 한시에서 〈初月〉같은 문학성이 높은 수작이 나타나는 것은 개화기 한시의 독자적 영역을 확보한 우국시를 지양하여, 개인의 정서를 함축한 한시로써 개화기 한시 내용의 확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면암 한시는 개화기의 특수한 상황, 개화와 반개화 사이에서, 개화파의 개화가사의 내용도 아니고, 반개화 입장의 척사, 외세배척의 내용도 아니며, 우국에 치우쳐 한시 내용이 단조로와 그 문학성이 인정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日常의 情感을 詠懷하여 한시 내용의 영역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다. 면암에게 있어서 ‘日常과 情感의 詠懷’의 시세계는 이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다고 볼 수 있다. 흑산도 유배지에서 重陽을 맞이하여 읊은 〈重陽〉을 더 살펴 보기로 하겠다. 여기서는 시대상황과 유배적 정한이 복합적으로 면암 자신에게 부딪혀 오지만 자위하여 스스로 위로하려는 면암의 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年年重九會	해마다 중구의 모임은,
只接海山高	다만 바다와 산만을 대했구나.
久客身多病	나그네 생활 오래라 몸에 병이 많고,
涉難意更豪	어려움을 겪으니 뜻은 더욱 커지네.
浪迹依靈境	허황된 자취는 승지에 의지하고,
餘緣付濁膠	남은 인연은 막걸리에 붙였네.
古今均失得	예와 이제를 보니 득실이 같은데,
白適不須勞 ⁴⁶⁾	걱정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리라.

유배지 흑산도에서 중양절을 맞이하여 심회를 五律로 述懷하고 있다. 비참한 자신을 표백하면서도 자기의 처지를 ‘依靈境’·‘付濁膠’로 자위하려는 면암의 의지가

46) 〈勉菴集〉卷之一 〈重陽〉

드러나고 있다. 首聯에서는 유배된 자신의 처지, 거둬지는 유배인이 된 자신을 슬회하고 있다. 해마다 증양절이 되어도 친구들과 높은 곳에 올라 성리학자로서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해마다 유배지인 섬에서 혼자 높은 곳에 올라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뒤돌아 보고 있다. 頷聯에서도 오랜 유배생활로 하여 병을 얻고, 이런 어려움이 뜻을 더욱 크게 한다고 자위하고 있지만, ‘難’이 곧 ‘豪’라는 인식은 상당히 모순을 이루고 있다. 조선조 君臣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君에 대한 臣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서도 感君恩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難’은 유배적 상황만이 아니라 외세의 압력이 가중되어가는 시대상황도 의미하기에 ‘豪’의 의미는 척사에 대한 강렬한 인식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지가 벽을 넘지 못할 때 면암에게는 ‘靈境’과 ‘濁漚’가 남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면암 한시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모습이다. 대체로 자탄이 우국으로 승화되는 것이 면암의 시세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모습인데, 여기서는 우국의 뜻이 개인의 정서에 묻혀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尾聯에서는 면암의 情感이 頸聯까지 보여준 자위적인 모습은 모두 사라지고 萬事를 초탈하여 自適하는 자세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면암의 시세계에서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된다. 백절불굴의 지사적인 면모로 일관한 면암도 한편으로는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와서 사사로운 감정에 마음을 움직이는 휴머니티를 발견하게 된다. 그의 한시 대부분이 우국이라는 기둥을 바탕에 두면서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情感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면암에게 있어서 이러한 면모는 풍부한 감정을 소유한 인간, 선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선비의 모습, 휴머니티를 간직한 인간으로의 모습은 〈順天士人〉과 〈牛耳卽事〉에서 뚜렷하게 살필 수가 있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또 다른 면암의 모습과 문학성이 면암 한시에 하나의 시세계를 형성하는 주요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의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먼저 〈順天士人〉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頻年嶺海迹堪悲	여러 해 귀양살이 슬프기도 하더니,
是處逢人喜可知	여기서 그대 만나니 즐겁기 한이 없네.
群憾盈庭三尺歇	소인이 조정에 차니 법이 소용 없고,
聖恩減死一帆危	임금님 은혜 깊으니 조각배 멀두나.
圍虛未易團圓會	여기서 이 모임 어찌 쉬우랴,
陋境猶多邂逅期	누추한 곳에서도 만날 기약 있네.

日晩江城船發促 날 저문데 뱃길조차 재촉하니,
強牽征袖覓新詩 가는 님 소매잡고 시 짓기 바빠하네.

意中人自朗之城 바라고 바라던 사람 이제야 왔으니,
囚室顰驚眼霧晴 옥살이 어두운 눈 홀연히 밝아 오네.
違國論時難倖免 국론을 어겼으니 양화를 면할소냐,
樂吾心處有全生 이 마음 즐긴 곳에 내 생명 참되리라.
拏山曾感三年間 한라산 삼 년 동안 그대 물음 고맙고,
牛島重圍此夜情 우이도 오늘 밤 이 모임 즐거워라.
居久莫嫌滋味薄 이 곳에 재미 없다 하지 말라,
家家新麥動歡聲⁴⁷⁾ 집집마다 햇보리에 환호성이 높네.

이 시는 七律로 된 一題二首의 작품이다. 高宗13년(1876년, 44세) 윤 5월 순천 선비 趙鍾憲과 靈巖 衛前 河權默이 유배지 흑산도에 찾아와 수일을 함께 지냈는데, 이 때 지은 작품이다. 이 시에서는 유배지에서의 상황과 자신을 동화시키는 서정시인의 면모를 보여 준다. 기백과 울분이 정화되고, 自歎이나 情恨의 감정까지도 극복하여, ‘自然과 交遊의 空間’에서의 自適, 閒情의 자세마저 나타나고 있다. 日常과 情感의 詠懷는 면암의 시세계에서 다정다감한 인간으로 돌아온 즉 휴머니티를 간직한 인간의 모습이다. 면암이 급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유배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자탄과 개세의 마음을 극복하여 유배지의 자연과 유배지의 촌민들과 함께 동화될 수 있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또 다른 면암의 모습, 선비의 모습을 대변해 준다고 하겠다.

먼저 전반부의 시를 살펴보면, 趙鍾憲과 河權默과의 만남을 매우 기뻐하고, 이별의 아쉬움을 읊었다. 頷聯에서 자신의 처지와 시대상황을 나타내 보이고 있으나, 격분하거나 개세하는 마음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 전체에서 상황제시의 역할로 머물고 있다. 經聯에 와서는 비록 유배된 처지이면서도 趙鍾憲, 河權默과의 만남을 통하여 복잡한 시대 상황과 政界를 잊을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된다. 尾聯에 와서 그들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면암의 마음은 곧, 인간의 삶에 대한 동경이며, 오랫동안 유

47) 《勉菴集》 卷之一 〈順天士人趙鍾憲靈巖河權默入來 相守數日拈韻共賦〉

배 생활로 인하여 고독이 뼈에 맺힌 면암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 情感으로 흘러버리지 않고 유연한 자세에서 휴머니티를 간직한 이웃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면암에게서 이러한 휴머니티는 유배인과의 동화, 유배지의 상황과 동화되어 고독을 극복하는 자세를 보여 준다. 이 시의 두번째 수에서는 동화와 극복의 자세가 더욱 드러나고 있다. 앞의 수에 이은 首聯에서는 유배지까지 찾아온 사람을 통해 위안을 찾고 있다. 그리고 頷聯의 ‘樂吾心處’는 지금의 면암의 마음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비록 국론을 어겨 죄를 면하기가 어렵다 하여도, 유배지에서 동화되어버린 면암은 生死를 잊은, 好惡를 떠난 달인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동화되어버린 면암의 모습은 尾聯 ‘家家新麥動歡聲’에서는 〈黑山叙懷〉에서의 ‘石田未半常年食’과는 매우 대조적인 이미지로, 〈黑山叙懷〉의 慨世가 아니라 同化의 감정, 同化하려는 면암의 의지를 살펴 볼 수 있다. 물론 면암에게서 이러한 同化의 의지는 유배의 고독을 벗어나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렇다고해도 면암에게 있어서 이 의지는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며, 日常과 情感의 詠懷리는 시세계에 절대적인 조건으로 제시되어 마땅하다. 〈牛耳卽事〉도 이러한 맥락에서 고찰할 수 있다.

茅屋數間臨碧江 오두막 두어 간이 강물에 닿았으니,
偷閒養靜也無雙 한가하고 고요하기 그지없구나.
潮聲撼地寒侵席 찬 기운이 스며드니 조수 소리가 땅을 흔들고,
雲氣籠山翠隕窓 푸른빛이 창에 가시니 구름 기운 산에 들렀네.
未効丹心憂袞闕 일편 단심은 곤곤했을 근심하고,
且將窮夜點書缸 긴 밤에 글 읽는 등잔만 켜네.
有時風雨人稀到 때로는 비바람에 오는 사람 드물어,
落葉輕輕每訝澗 떨어지는 낙엽 소리에 인적인가 의심하네.

孤帆再渡入湘江 조각 돛이 다시 상강에 들어가니,
蒹草蘭香自有雙 헤초와 난초는 스스로 쌍이 있네.
苦憶病親長隱几 병든 아버지를 생각하며 궤에 의지했고,
却看樺子喜開窓 어린애를 보자 문득 창문을 열었네.
旅廚歲儉無兼物 나그네 부엌에 흉년을 만나니 반찬이 없고,

雪屋寒多共一釘 겨울 방이 하도 차니 등잔을 같이했네.
 但恨春回分手地 다만 한스러운 건 봄이 오고 그대가 가는 곳에,
 那堪門戶去來聲⁴⁸⁾ 어찌 건디리 집 앞에 오가는 발자국 소리.

유배지 흑산도에서 쓴 七律의 一題二首 작품이다. 이 시는 두 수 모두 尾聯에서 청각적 환상의 표현을 통하여 고독을 읊고 있다. 비슷한 내용의 두수를 통하여 전반부에서 ‘丹心’을 보이려는 있으나, 곧 개인적 정서로 승화되고, 尾聯의 幻聽을 통하여 고독의 情恨을 시로 승화시키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首聯에서 ‘慈草蘭香自有雙’을 통하여 자연스러운 시의 전개를 보이면서, 병든 아버지의 생각으로 괴로워하는 모습과 찾는 이 없는 茅屋에서 어린애와의 만남을 기뻐하는 頷聯에서는 너무나 인간다운 휴머니티를 간직한 선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頸聯의 유배의 상황과 尾聯의 幻聽을 통하여 반복 표현된 고독은 더욱 그 효과를 더하고 있다.

日常과 情感의 詠懷에서 가장 면암 자신의 情感을 솔직하게 드러낸 작품중의 하나다. 安秉烈은 이러한 시세계를 ‘情人으로서의 詩’라고 분류하여 고찰했다. 그는 여기서의 결론을 “情人으로서의 그의 詩는 훈훈하고 그윽하게 다정다감을 노래하되 스스로 빠져들거나 傷함이 없다”⁴⁹⁾고 했다. 타당한 지적이라고 하겠다. 〈牛耳卽事〉에서는 다정다감을 훨씬 넘어선 고독의 신음이, 전반부·후반부의 尾聯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하여 면암의 시세계가 다양한 면모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국의 기개로 개인적 정감이 단절된 듯한 시로부터 〈牛耳卽事〉에서와 같이 유배의 상황에서 고독의 신음까지 다양한 면모를 나타내고 있다.

一首의 ‘落葉輕輕每訝聲’과 二首의 ‘那堪門戶去來聲’에서 면암은 고독으로 빠진 평범한 한 인간의 모습으로 파악되어야 하겠다. 여기서의 고독이 인간에 대한 그리움으로서의 고독이건, 자신의 내적 갈등에서 오는 고뇌로서의 고독이건간에 이 고독에 깊이 빠진 면암의 모습에서 평범한 한 인간의 면모를 보게 된다. 이것은 면암 한시 내용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日常과 情感의 詠懷에 해당하는 〈新年得韻〉, 〈黑山叙懷〉, 〈昨兒告歸倉卒口號〉, 〈初月〉, 〈重陽〉, 〈順天士人〉, 〈牛耳卽事〉를 살펴 보았다. 이 작품들은 유배지에서의 情恨, 述懷, 自歎들의 내용을 표백하고 있다. 다정다감한 인간으로 돌

48) 〈勉菴集〉 卷之一 〈牛耳卽事〉

49) 安秉烈, 앞의 글

아온 면암은 혼혼한 情이 넘치는 선비의 자세를 보여 주었다. 그러면서도 이 시세계에 포괄시킬 수 있는 작품들은 먼저, 우국이 바탕에 깔려 개인적 정감을 노래하면서도 우국의 정을 잃지 않은 모습, 둘째도 우국의 내용이 시 전개로 등장하여 개인적 정감에 결국 승화되어지는 경우, 마지막으로 평범한 인간의 고뇌와 고독을 시로 승화시킨 작품 등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면암의 시세계는 그 문학성과 더불어 개화기 한시 영역의 확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日常과 情感의 詠懷에서 보여주는 면암의 면모는 세 유형으로 고찰되었다. 이러한 유형 아래 <黑山叙懷>에서는 한탄과 자탄 등을 표백하면서도, 우국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고, <初月>에서는 고도의 상징과 비유로 면암 자신의 고독을 읊고 있지만 완전하게 독립된 고독이 아니라 우국하는 신하로서의 고독을 표백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順天士人>과 <牛耳卽事>에서는 평범한 한 인간으로 돌아와 同化되는 감정과 면암의 눈물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면암 한시중 日常과 情感의 詠懷에서는 대부분 우국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결국 끝내는 독립된 자신의 고독과 슬픔을 토로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初月>에서 살펴 본 고도의 상징과 소재들의 이미지가 응집되어 통일된 이미지가 형성된 문학성, 개화기 한시의 고유영역인 우국시에서 벗어나 특히 위정척사파의 한 사람인 면암에게서 독립된 개체로의 고독과 슬픔을 표백한 한시를 남긴 것은 개화기 한시 영역의 확대라는 면에 의의가 있다. 반면, 개화기의 한시문학이 국문학사적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문학성과 시대상황의 반영이며 사상의 반영인 면암 한시도 문학사적으로 정당한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4. 自然과 交遊의 空間

江湖에 귀의하여 자연과 더불어 살며 世上事를 잊고자 하는 仙人의 생활은 조선의 선비들의 한결같은 理想이었다. 그들은 召命이 있으면 나아가 宦臣이요, 내침을 당하면 물러나 隱人이었다. 그러므로 내침을 당했을 때 자연을 벗하고 자기수양을 하면서 깨끗한 삶의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성리학에서의 君子, 선비의 자세와 연결된다. 면암이 기백과 울분의 志氣, 日常과 情感의 詠懷에서 백절불굴의 지사적인 면모와 다정다감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여기서는 '自然과 交遊의 空間'의 시세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행동하는 정치인이었던 면암이지만 그 깊은 심연에는 자연에의 鄉愁가 짙어 자연

을 즐기는 자신을 仙分이라고 일컫고 있다.⁵⁰⁾ 비록 유배된 처지이면서도 자연과 同化되어 성리학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無慾, 無俗, 無邪한 마음으로 자연에 몰입하여 仙人이 된 심정을 표백한 脫俗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성리학적 자연관을 계승한 자연애, 즉 관조적 입장에서 자연현상에 대하여 읊고 있으며, 절해고도에서도 유유자적하는 閒情 등을 읊고 있다. 이러한 면암의 자세에서 도학자인 선비의 자세를 발견하게 된다. 면암의 도학자적 삶, 즉 자연을 통하여 진리를 찾으려는 자기수양의 끊임없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군자의 자세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군자의 삶과 자연관을 통하여 ‘自然과 交遊의 空間’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면암 한시에 있어서 ‘기백과 울분의 志氣’를 통해서도 면암의 사상과 현실인식 등을 고찰할 수 있었고, 여기서는 면암의 자연관과 문학성, 그리고 自然과 交遊하는 자세의 모습, 즉 또 다른 선비의 모습을 고찰할 수 있다.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주었던 면암은 ‘日常과 情感의 詠懷’를 통하여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개인적 정감을 솔직하게 표현하여 懷鄉의 다음을 표현하고, 그러면서도 유배지의 상황과 동화되는 다정다감한 인간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여기서는 자연에 몰입하여 자연으로부터 깨닫고, 반성하는 자기수양의 자세를 보게 된다. 다만 면암의 이러한 시세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모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면암에게 있어 이러한 세 유형의 시세계는 작품 하나에도 나타날 수 있다.

자연과 교유하는 면암의 자세는 無慾, 無俗, 無邪의 자세이며, 이것은 곧 탈속의 자세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서의 면암의 인식, 국내의 정치 모순에 대한 면암의 자세가 자연과 교유하는 사이에 어느덧 탈속의 자세로 나타나게 된다.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다가 해배되어 떠날 때 쓴 〈別刀嶺乘船〉을 먼저 살펴 보도록 하겠다.

幾年絕域隔紛塵	낙도에서 몇 해를 세상과 등졌던가,
四月南風雨露新	초여름 좋은 풍경 우로마저 새로와라.
山靄都收波面靜	산 안개 걷히고 파면은 고요하여,
一場快做壯遊人	한바탕 장유하는 사람 되었구료.

縹渺靈山不受塵	저 표묘한 한라산 깨끗도 한데,
鹿潭瀛室渡頭新	백록담 영실이 더욱더 새롭구나.

50) 安秉烈, 앞의 글

彙迹雖漸仁智樂 나 같은 신세 어찌 산수의 즐거움 알라만,
庶能誇我遠遊人⁵¹⁾ 그래도 먼 데를 구경했다 자랑하리.

면암은 高宗12년(1875년, 43세) 3월 16일에 解配關門이 들어와 判官 李時鉉이 공복을 갖추어 입고 우리를 철거하여 1년 반 동안의 제주 유배생활을 마쳤다. 귀경하는 일정을 연장하여 한라산을 등정한 후 4월 12일에 별도진에 배를 띄웠을 때 쓴 작품이다. 유배적 상황에서 벗어난 심정을 거침없이 토로하면서, 새로 보는 모든 자연은 지금까지 보았던 자연이 아니라 자신이 몰입된 仙遊할 수 있는 空間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시는 七絶로 一題二首의 작품이다. 첫째 수에서, 絶域에서 대하던 四月의 풍경들은 유배가 풀리자 모두 새롭게 다가온다. 轉句와 結句에서는 한바탕 壯遊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표백하고 있다. 비록 이 시를 쓰고 얼마후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되는 상소를 쓰게 되지만, 여기서는 自然과 交遊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면암은 <五條大義>의 疏와 연루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면암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에서 고찰했듯이 疏의 배경이 국내의 모순과 외세의 침략에 대한 저항이었다. 마찬가지로 해배직후의 上疏도 <五亂亡>으로 외세의 침략에 대한 저항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시는 仙遊의 空間으로서의 시세계가 아니라, 자연을 통해 浩然之氣를 쌓고, 급박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각오를 다짐하는 역설적 의미로도 파악된다. ‘一場快做將遊人’은 호연지기와 더불어 탈속의 자세 중 無邪와 연결된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자연은 尋眞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이며, 자기 수양의 자연이다. 그리고 자기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전통적 성리학자의 자연으로 파악된다.

둘째 수에서 起·承句에서 해배되어 떠나게 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不受塵’과 ‘渡頭新’은 면암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자기 수양과 반성의 결과다. 자연과 대립하여 세상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며, 현실의 불만족스러움에 대하여 자연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하여 끊임없는 尋眞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彙迹雖漸仁智樂 庶能誇我遠遊人’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여 仁者의 즐거움, 즉 자연을 통하여 어진 사람이 깨달는 경지를 비록 찾지는 못할지라도 ‘遠遊人’이 되었다고 표백하고 있다. 비록 1년 반 동안의 유배생활을 했지만 자연과 더불어 交遊한 면암의 자세를 파악하게 된다.

51) 《勉菴集》 卷之一 〈別刀鎮乘船〉

면암의 시세계에서 自然과 交遊하는 空間은 현실을 모두 잊어버리는 현실도피적 空間이 아니라, 자연에 몰입하여 수양하고, 반성할 수 있는 공간, 尋眞의 대상으로서의 空間이다.

반면에 제주도의 유배에서 해배되자마자 <五亂亡>의 疏와 연루되어 흑산도로 유배를 당하게 된다. 그의 시 <暮春登山>에서는 제주도의 유배생활을 자탄하면서 지금 흑산도까지 유배되어 언제 해배될지 모를 자신을 한탄하고 있다. 유배된 자신을 자탄하면서도 끝에서는 체념하여 자연과 교유하는 자세로 세상을 잊고자 하는 자세가 드러나고 있다. <暮春登山>을 살펴보자.

羶洲採藥夢依稀	옛날 제주에서 약 캐던 일 꿈만 같아,
萍跡重臨黑水西	부평 같은 이 신세 오늘 또 흑수 땅에.
塞霧連天同關關	국경선 짙은 안개 무단히 오락가락,
列山浸海混高低	바다속에 잠긴 산은 높고 낮음 없더라.
境寒花懶三春意	지대가 차니 꽃은 봄 소식 더디고,
谷邃禽閑盡日啼	골이 깊으니 한가한 새들 자꾸만 울어.
滿眼風光隨處足	한없는 풍경 어찌나 좋아서
且傾樽酒莫催歸 ⁵²⁾	돌아가지 말고 또 술 한 잔 부어 보세.

유배된 자신의 처지를 거침없이 자탄조로 표백하고 있으면서도 尾聯에 와서는 자연으로 돌아와 교유하려는 자세를 보여주는 七律이다. 제주도에 이어 다시 흑산도에 유배된 자신을 회상과 자탄으로 일관하면서, 꽃과 새에 자신의 처지를 비유하여 언제 해배될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인간세상에 대한 그리움이며 고독이다. 이러한 그리움과 고독이 尾聯에서는 체념을 통하여 無慾, 無邪, 無俗을 얻게 된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自然과 交遊하는 空間을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면암이 자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현실을 버리고 은둔하려는 자세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의 慾, 邪, 俗을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공간이다. 이것은 탈속의 자세로부터 자연으로 돌아와 자연과 교유하는 공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면암에게서 자연은 버리고 은둔하는 도피처가 아니라, 현실을 적극 수용하면서 자신의 것을 버리는, 즉 탈속으로 접할 수 있는 수양의 대상이며, 반성

52) <勉菴集> 卷之一 <暮春登山>

의 공간이며, 淸眞의 空間으로 보아야 하겠다. 이러한 면암의 자연관은 성리학자의 자연관이다. 면암은 한시문학을 통하여 성리학자의 전통적 자연관을 계승하게 되는 것이다. <暮春登山>의 시상 전개를 통해 보면 이러한 자연관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首聯에서 회상을 통해 제주도 유배시 약초 캐던 일을 들어 시상을 일으킨 다음에 흑산도까지 유배된 자신의 처지를 자탄하고 있다. 이 자탄속에 원망이 없고 ‘萍跡重臨’이라 하여 두 번 유배됨을 ‘羸洲採藥’과는, 실상은 유배로써 같은 것이지만, 다르게 표현하여 자탄하고 있다. 頷聯에서는 엄숙하게 현실로 돌아온다. 頷聯의 시어들은 모두 多意性을 띠고 있다. 흑산도의 자연배경을 통해 ‘塞霧連天’인 나라, 즉 혼란한 국내외 정세를 표현해내고 있다. 이 시상이 계속 이어져 頸聯에서 자신의 유배된 처지를 ‘花, 禽’에 감정이입하여 의인화된 자연물, 즉 면암의 분신, 면암과 동류의식을 갖는 대상을 통해 자신의 고독과 인간세계에 대한 그리움을 상징적 비유로써 드러내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이 정서를 尾聯을 통해 승화시키고 있다. 면암에게서는 앞에서 보았듯이 우국의 내용이 시에 관류하여 자탄에 빠지거나 감상이나 애상에 빠지지 않게 그 정서를 한정하는 경우를 고찰하였다. 여기서 尾聯에서도 고조된 고독과 그리움의 정서가 탈속으로 승화되어 애상에 빠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의 탈속은 면암의 내부의 고독의 대상, 그리움의 대상을 버리는, 곧 자신의 내부의 것을 버리는 無慾, 無邪, 無俗의 탈속이다.

자신의 것을 버리는 탈속을 통하여 자연과 교유할 수 있는 공간과 만나며, 이 공간에서 수양을 하고 반성을 하며, 진리를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면암의 자연관은 성리학자의 전통적인 자연관을 계승한 것이다. 면암이 탈속을 통하여 자연과 직접 교유하는 <仙遊峰>은 면암의 자연관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보인다. 다음은 <仙遊峰>을 통해 살펴보겠다.

朝霧難分細逕幽	아침 안개에 오솔길 분간하기 어렵더니,
日高淸朗半疑秋	늦게야 맑은 기운 가을인가 하노라.
依稀漢使銷丹鼎	한사의 단사 굽던 술 어디이던가?
指點秦童採藥舟	진동의 불로초 캐러 가던 배가 아득하구나.
石東鸞笙藏海面	돌은 난생을 묶어 바다에 숨고,
松扶鶴駕向雲頭	술은 학가를 부축하여 구름을 향했네.
老仙亦解吾心事	노선도 내 마음을 알고서,

露出眞顔暫見留⁵³⁾ 제 모습을 드러내어 잠깐 머물게 하네.

자연에 몰입하여 교유하는 공간은 면암의 시세계에서 특히 금강산 기행시에서 살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그러한 공간, 즉 禪眞의 공간, 수양과 반성의 공간도 유배상황에서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현실도피처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확고한 면암의 사상이 원인이 된다. 여기 〈仙遊峰〉에서 나타나는 면암의 공간은 더욱 仙遊的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七律인 이 작품은 首聯에서 면암이 위치한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으로 仙景에 몰입할 수 있는 시상을 일으키고 있다. 유배지에서 유배적 상황을 잊으려고 가끔 산을 찾았을 것이다. 자연과 교유하는 사이에 어느덧 침잠한 자신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頤聯에서는 회상을 통하여 시상을 전개시키고 있다. 漢使가 丹砂를 찾고, 秦童이 불로초를 캐러올 만큼 이름있는 곳, 여기에 자신이 있다. 이러한 仙遊의 空間에서 면암은 自然과 交遊할 수 있는 空間을 찾았으며, 몰입하여 仙分이고자 했다. 頸聯에서는 흑산도, 유배지의 자연 경승을 仙景으로 읊고 있다. 바다로 곧고 완만하게 뻗어 있는 바위는 봉황이 머리를 쳐들고 긴 꼬리를 늘어 뜨린 모습과 같이 우아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그리고 바위에 곧고 낮은 현으로 드리운 소나무는 신선이 타고 다니는 학가를 부축하여 구름을 향하는 것으로 표현했다. 이 경승은 선경이며, 면암이 반성의 장소이며 禪眞의 대상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尾聯에서는 자연에 몰입하여 眞을 얻게 된다. 오랫동안 자연이 禪眞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자연관은 전통적인 성리학의 자연관이며, 前時代 유배지에서 보이는 은일적 자연은 아니다. 개화기 한시에서 보이는 현실세계의 비판을 자연에 옮기는 실학적 자연관도 아니다.

자연을 통하여 禪眞하려는 면암의 자세는 군자의 모습이며, 선비의 면모다. 면암이 비록 시를 통해 道를 이야기 해야한다는 재도론적인 문학관으로 일관했지만, 면암이 자연물을 시에 옮겨 놓은 것은 한가한 풍월을 읊은 것이 아니라 자연에 적극 수용하여 자연으로부터 眞을 찾으려는 의지였기 때문에 면암의 자연관과 그의 문학론인 재도론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유배지 흑산도에서의 작품 〈門巖峰〉도 〈仙遊峰〉과 같은 맥락에서 고찰할 수 있다. 제주도에 이어 흑산도로 유배를 당하면서도 유배지에서 禪眞하는 자세를 잃

53) 〈勉菴集〉卷之一 〈仙遊峰〉

지 않고 있다. 〈門巖峰〉에서는 자연을 찾는 자신을 ‘狂態’로 표현하면서 자연을 통한 마음의 안정을 보여 준다. 여기서의 면암의 자연관도 〈仙遊峰〉과 같다. 〈門巖峰〉을 살펴보면,

山在南溟浩渺端	남쪽 바다 아득한 끝에 있는 이 산,
登臨五月涼生寒	올라보니 오월에도 차갑기만 하구나.
宛然天地無形外	참으로 이 천지는 가이없구료,
一望水雲不盡間	바라볼수록 물 구름만 뜰 뿐이네.
耽景何嫌雙脚苦	경치를 탐하니 피로를 모르고,
尋眞只許寸心寬	참을 찾으니 마음이 너그러워라.
謫來猶有疎狂態	귀양살이에도 낭만적 생활은 여전해,
纔躋嶺洲更此攀 ⁵⁴⁾	겨우 제주를 보고 또 이 곳에 왔네.

이 작품은 七律로 문암봉, 선유봉과 월산의 고적을 유람하고 읊은 작품이다. 예부터 흑산도에 유배된 유형수는 대흑산도이건 소흑산도이건 자기 편의대로 적소를 정했다. 이 시에서는 끝없이 이어지는 산수에의 집념과 仙人的인 자태가 엿보인다. 首聯과 頷聯에서 유배지의 배경, 공간적 배경을 제시했다. 절해고도인 흑산도는 5월인데도 날씨가 차다. 산정에 혼자 올라와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인 자신으로부터 멀리 수평선까지 시야를 넓히고 있다. 頷聯의 ‘無形外’와 ‘不盡間’에서 대자연에 접한 면암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자연은 어느 일정한 모양도 아니고 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자연으로부터 얻지 못하는 것은 없으며, 그 자연 앞에 선 자신은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든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자연으로부터 찾은 진리는 영원한 것이다. 면암의 한시에서 나타나는 자연은 이러한 자연관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면암이 몰입하는 자연도 尋眞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일 수밖에 없다.

頸聯과 尾聯에서의 시상은 首聯과 頷聯에서 대자연의 배경에 대한 인과적 관계로서의 결과다. 전반부와 후반부, 즉 首聯, 頷聯이 景에 해당되고 頸聯·尾聯이 情에 해당하는 先景後情의 구성을 취했으며, 이 구성은 대체로 원인과 결과의 구성을 말한다. 그러므로 전반부에서 배경을 통해 자연의 참모습, 절대적 모습을 전제하여 후

54) 《勉菴集》卷之一 〈門巖峰〉

반부에서는 그런 자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상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頸聯의 ‘尋眞只許寸心寬’은 이 시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다. ‘寸心寬’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연의 진리를 통한 방법뿐이다. 이렇게 자연을 통해 수양하는 자세가 도학자의 자세이며, 근자의 자세다. 여기서 면암의 선비적 자세를 확인하게 된다.

先景後情으로 시상을 전개한 〈門巖峰〉에서 면암의 자연관을 뚜렷하게 확인했다. 그리고 성리학자의 입장에서 자연의 궁극적 본질도 고찰했다. 자연은 절대적 가치의 세계다. 자연에서 交遊하는 것은 仙分을 말하며, 모든 성리학자가 이러한 자연관 속에서 자연과 交遊하는 空間을 원했다. 면암의 詩世界에서 脫俗과 自然愛는 모두 성리학적 자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연과 교유의 공간을 통해 유유자적하는 자세를 보이게 되는데 自適의 모습도 자연에 몰입하여 그 후에 얻은 진리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적은 자연과 교유의 공간에서 얻은 마지막의 모습이다. 자적의 모습은 〈次李燾寄示韻〉, 〈舟于永山前洋〉에서 살펴볼 수 있다. 차례로 살펴보면,

獨居無事戶常關
誰識箇中日月閑
一榻全書堪寓日
三杯薄酒強怡顏
倘非仙子會前約
肯許名山偶爾攀
莫謂惠州天上在
鄉音時帶去舟還

일없이 문 닫고 혼자 앉았으니,
이렇게 한가한 줄 누가 알라.
한 책상 가득찬 글 보기 좋고,
석 잔 막걸리에 웃어나 볼까.
아니 신선과 인연이 깊지 않았던들,
어찌 명산에 우연히 오를 수 있으랴.
혜주가 멀다고 말하지 말라,
저기 저 배 고향 소식 전해 주리.

盈盈大海始於絲
吞地滔天勢極危
縱稱島俗殊聞見
自有靈山擅怪奇
隔砌清香柑蔗熟
入簾秋氣客先知
休道行藏隨處適

넘실대는 큰 바다 실낱 같은 물로 시작,
끝내는 천지를 삼켜 기세가 아슬아슬.
섬 풍속 비록 다르다 하나,
곳곳마다 명산 좋기만 하더라.
뜰앞의 맑은 향기 꿀이 처음익고,
발에 든 가을기운 손이 먼저 아네.
말 말라 자기 신념 곳을 따라 맞춘다고,

風頭立脚古難持⁵⁵⁾ 바람 앞에 몸 가누기 어렵느니.

유배지 제주도에서 쓴 七律의 一題二首다. 시 전체에서 유유자적하는 면암의 자세를 살필 수 있다. 자연에 몰입하여 얻어지는 自適이다. 자연을 늘 동경하고 이제 제주도에 유배오게 되어 자연과 交遊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시에서는 〈仙遊峰〉과 〈門巖峰〉에서보다 양상이 다른 空間을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는 떨어진 위치에서 자연을 관조하는 입장이고, 여기서는 자연의 일부가 된 상태에서 자연으로부터 얻은 기쁨을 표백하고 있다. 이러한 기쁨을 얻음으로써 비록 유배지였지만 유유자적 하는 자세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시간의 순서대로 보면, 흑산도 유배가 제주도 유배보다 뒤이므로 시세계의 전개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면암에게서 이러한 시세계의 전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시세계는 작품 하나에서도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므로 면암의 시세계는 시대적 고찰이 어려워 주제별 고찰을 시도할 수 밖에 없다.

〈次李燧寄示韻〉은 면암이 자연에 몰입된 공간을 보여준다. 자연과 충분히 교류하여 형성된 공간이다. 성리학자로서 자연관을 간직한 면암으로서는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첫째 수의 首聯과 頷聯은 반어적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無事’, ‘日月閑’, ‘堪寓目’의 閑情의 이미지, 自適의 이미지가 ‘強怡顏’에 와서는 반전되기 때문이다. ‘強’은 억지의 뜻으로 지금까지의 이미지를 단절시키고 있다. 그러나 모순결합으로 반어적 내용이 된 ‘強怡顏’은 면암의 자연친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로 파악된다. 頸聯과 尾聯에 나타난 자적의 자세에서 적극적인 의지임을 살펴볼 수 있다. 둘째 수는 전체적으로는 자적의 자세를 보이면서도 首聯에서는 비유적으로 시대상황을 표현했고, 頷聯에서는 유배의 처지를 극복하여 자적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頸聯에서는 유배된 자신을 슬회하고 있으면서 尾聯에 와서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志氣에 대한 의지를 표백하고 있다. ‘古難持’는 비록 면암에게 처한 상황이지만 이것을 극복하려는 역설적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自然과 交遊하여 얻은 空間, 즉 自適의 모습에서도 자연의 진리를 깨닫는 즐거움과 함께 우국과 지기, 그리고 슬회의 내용도 포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자연과 교류하는 사이에 얻어진 자적의 자세가 두드러지게 보인다.

반면에 〈舟于永山前洋〉에서는 자연에 몰입하여 仙分의 모습마저 보인다. 탈속한

55) 《勉菴集》卷之一 〈次李燧寄示韻〉

자세에서 자연을 접하고, 그 자연물과 일체가 되어 유유자적하는 仙人의 모습을 드러낸다. 흑산도 유배시 쓴 것으로 山水와 더불어 유유자적하는 면암의 도학자적 자세, 선비적인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품을 통해 살펴보면,

春來幾擬訪漁舟	봄이 오니 얼마나 배 띄우기 생각했던가?
此日輕風可溯流	오늘에야 순풍 불어 강 거슬러 갈 만하네.
眠界星馳群島列	눈에 들어오는 못 섬은 별같이 달리고.
胷中簸却點埃留	가슴 속엔 티끌 한 점 남김없이 다 날려라.
魚因甚事潛還躍	고기는 무슨 일로 뒤락잠기락 하는가?
鳥拂天機浴更浮	새는 재밌에 뜨고 날지.
乘興未須愁薄暮	흥겹다 보니 날 저문 것도 좋아서,
朗吟佇立碧波頭 ⁵⁶⁾	낭랑하게 읊고 나 홀로 물가에 서 있네.

따뜻한 봄날을 맞아 흰히 트인 바다에 배를 띄워 바다위에서 읊은 七律이다. 首聯과 頷聯에서는 바다에 배를 띄워 자연의 일부가 된 면암의 모습을 볼 수 있다. 頷聯에서 ‘胷中簸却點埃留’는 無邪, 無慾, 無俗를 드러낸 脫俗의 모습이다. 탈속한 마음으로 자연과 일체가 되고 〈門巖峰〉에서의 ‘導眞’을 지나 진리와 함께 하여 즐기는 모습이다. 먼 시야를 통해 관조하는 자연을 넘어 자연속에 일부분이 되어 자연의 절대적 가치, 즉 ‘眞’과 함께 하고 있다. 그러므로 頸聯에서 보이는 모든 자연 현상은 진리의 구체적인 형체이다. 관념으로만 추상화되었던 진리가 구체적인 형체로 나타나는 자연속에서 진리를 얻고 진리를 향유하는 자세는 유유자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鳥拂天機浴更浮’는 면암의 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 ‘鳥’가 자연의 일부분이면 면암도 자연의 일부다. 그러므로 자연속에서 새와같이 자유로운 면암이 된다. 尾聯에서는 자연을 만끽하여 자연에 대한 고조된 감정이 가라앉아 먼 시야를 통해 자연을 관조하고 있다. 자연과 교유의 공간에서는 대체로 관조하는 입장, 즉 먼 시야를 통해 자연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을 시로 승화시킨다. 여기서는 면암이 자연의 일부가 되어 자연속에서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白適은 自然과 交遊의 空間에서 얻을 수 있는 최종의 모습이다. 〈次李燾寄示韻〉,

56) 《勉菴集》 卷之一 〈舟于永山前洋〉

〈舟于永山前洋〉에 나타난 자적의 모습은 면암의 자연관을 실천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前者에서는 유배된 처지이면서도 ‘強怡顏’에 나타난 것처럼 자연에 몰입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後者에서는 자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자연의 일부분, 頸聯에서의 ‘魚’와 ‘鳥’와 같이 자연을 마음껏 즐기는 자신을 표백하였다. 비록 유배지에서도 면암 한시의 시세계에 山水와 더불어 함께 하는 공간이 설정될 수 있는 것은 도학자적 자세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면암이 근세에까지 성리학적 자연관을 시에 표백한 것은 개화기 한시의 내용에 적지 않은 폭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개화기 한시가 대부분 우국에 치우쳐 있고, 개세에 치우쳐 있을 때 면암이 자연과 교유하는 사이에 얻어진 공간과 그 공간에서 유유자적하는 모습의 시세계는 면암 한시뿐만 아니라 개화기 한시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상은 면암의 시세계 중 自然과 交遊의 空間에서 ‘脫俗’, ‘自然愛’, ‘白適’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유배된 사람의 입장에서 자연은 도피처이거나 안식처일 수 없다. 면암이 자연을 찾은 것은 단순히 그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면암에게서 자연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 자연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삶으로써 그 理法을 깨닫고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은 사람의 욕심을 물리치고 天理를 보존하기 위한 성리학적 자기 수양의 가장 이상적인 道場이다. 면암의 ‘自然과 交遊의 空間’에서 보여준 시세계는 모두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자연과 교유의 공간’의 시세계에서 면암의 자연관은 〈別刀鎭乘船〉, 〈暮春登山〉에서 고찰했듯이 ‘脫俗’적인 자세로부터 전개된다. 탈속은 無慾, 無邪, 無俗의 내용으로 나타났는데, 현실을 모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의 것을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자세다. 그러므로 탈속의 자세에서 바라보는 자연은 수양의 대상, 반성의 공간, 그리고 尋眞의 공간으로 고찰했다. 이러한 자연관은 전통적인 성리학자의 자연관과 일치한다. 면암의 이러한 자연관은 발전하여 자연을 탐하고 사랑하는 자세로 전환하게 된다. 그 후 자연에 몰입하여 자연의 절대적 가치와 함께 하는 白適은 ‘자연과 교유의 공간’에서 최종의 모습이다. 자적은 〈次李燾寄示韻〉, 〈舟于永山前洋〉에서 고찰했듯이 진리를 깨닫고 즐거움을 표백한 것과 자연물과 일체가 되어 유유자적하는 仙分の 모습을 표백했다. 더불어 〈暮春登山〉과 〈仙遊峰〉의 분석을 통해 문학성을 고찰했다. 그리고 〈次李燾寄示韻〉에서 이미지의 단절과 반어적 내용 등을 통해서 상당한 수준의 문학적 표현 기교를 고찰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감동과 쾌락을 충분히 담당했다.

仙遊的 자세, 자연과 교유하는 사이에 보여준 면암의 탈속은 仙人의 모습을 풍기는 고고한 선비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면암의 ‘自然과 交遊의 空間’이라는 시의 세계는 유배의 상황으로 현실을 모두 버리고 도피하는 자세가 아니라 면암 자신의 내부의 것을 버리는 자세로 귀결된다. 이러한 자세에서 면암의 선비적 풍모를 찾아볼 수 있다.



Ⅳ. 勉菴 漢詩의 國文學史的 意義

이상 면암의 시세계를 생애와 시대적 배경을 먼저 고찰한 후 이것을 바탕으로 서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중심으로 면암 한시의 국문학사적 의의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개화기 시대의 문학사 기술은 여러 측면에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 중에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이 '漢詩'의 문제다. 白鐵, 趙演鉉 등의 문학사에서는 한시를 그 범주에 넣지 않았고, 근래에 와서 趙東一, 金允植·김현 등의 문학사 기술에서는 한시를 범주에 포함하여 종합적 기술태도를 보였다. 開化期 詩史를 唱歌史로 묶어버리는 편협한 태도를 지양하고, 집적된 개화기 시가의 전반적인 유산을 바탕으로 사적 의의를 얻어야 한다. 시대상황의 수용과 강력한 극복 의지의 표현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충실한 장르가 개화기 한시 문학이다. 역사의 발전단계 속에 내재해 있는 구조적 모순을 첨예하게 직시하고 그 극복적 지향을 위한 구체적 행동의 시기가 개화기이기 때문이다.

척사와 개화 등의 사상적 혼류 속에서 비판, 항거 정신 등의 투쟁 의지가 전 시가 장르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항일투쟁정신은 특히 한시에서 뚜렷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조선조 사회가 안고 있던 여러 모순이 미해결인 채 개화기로 넘어오면서 조선 시가의 현실 비판적 전통이 개화기 시가에 그대로 뿌리를 내린 것이다.

개화기 한시의 저항·우국 정신은 물론 위기의식이 고조된 儒學士林 계층에서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구조적 모순이 심화되던 조선조 후기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던 한시가 철저한 행동문학으로서 변천해 간 사실은 마땅히 주목받아야 한다.⁵⁷⁾ 이렇게 보면 조선조 후기에 싹튼 한시의 저항, 비판적 양상이 당대의 모순을 극복하거나 해결되지 않고 이어진 채 민족적 비극으로까지 심화되어 가는 개화기에 접어들어 좀더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것으로 변모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개화기의 한시는 조선조 후기 시 전통의 발전적 계승이었고 또한 변형된 모습이었다. 이러한 양자의 시대상황의 수용과 극복이라는 공통사명을, 전통의 지속·연결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57) 金榮喆, 앞의 글

여기에서 개화기 문학 즉 한시 문학을 그 前代文學과 後代文學을 연결하여 하나의 문학사로 정리할 수 있는 모티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이 곧 개화기의 시가 문학, 한시가 갖는 문학사적 의의인 것이다.

구한말 위정척사파의 사상으로 일관한 면암의 한시 문학은 한국정신사의 흐름에서 외세 배경의 핵심논리를 제공하였으며, 주체적 전통의식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의의 또한 크다. 곧 西勢東漸의 위기속에서 민족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침략세력에 대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어 논리를 확인할 수 있다. '면암의 시세계'에서 고찰된 '기백과 울분의 지기'의 작품들은 대부분 이러한 차원에서 쓰여졌으며, 특히 우국, 지기, 재도 등의 작품들에서는 위정척사의 정신을 반영하여 그의 사상의 핵심이 나타났으며, 그의 한시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면암의 한시 문학은 1873년(41세) 이후부터 1906년(74세)에 이르기까지의 작품만 문집에 실려 있는데 만 33년 동안의 詩作이다. 지금도 근대문학의 분기점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데, 영·정시대, 1860년대, 갑오경장(1894)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⁵⁸⁾ 이러한 점에서 면암의 시문학이 갑오경장을 전후하여 그의 시세계에서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국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왜냐하면 갑오경장이 일제의 강요에 의해 시행된 國政全般의 대변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오의 의미에 개의치 않고 곳곳이 전통을 수호한 면암 등 한말의 도학자들이 지니는 정신사적 중요성이 한시 문학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갑오경장을 근대의 기점으로 본다면 면암의 시문학은 개화기를 전후하여 이질성이나 차이점을 들추어내는 단절이나 격리의 논리를 초월하고 문학사의 전통성이나 접맥성을 규명하는 자료가 된다. 그러므로 면암 한시 문학은 한국문학사에서 근대문학의 기점 논의에 충분한 의미를 준다.

한말 거유인 면암은 전형적인 동양의 군자, 즉 선비다. 본고는 그 한시의 시세계 고찰에서 達意爲主의 우국, 재도, 지기가 면암 한시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日常과 情感의 詠懷', '自然과 交遊의 空間'의 바닥에 깔려 있는 면암의 자연관과 시정신을 통한 문학성도 새롭게 조명되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한시의 계승과 시대상황으로 인한 현실지향의 양자 사이에서 면암의 시세계가 매우 폭 넓게

58) 劉元東, <한국사에 있어서의 근대의 기점>, pp. 139~152.
<한국사 시대구본론>, 을유문화사, 1970.

전개되었음을 의미하며 개화기 한시의 내용을 확대, 심화시켰다는 점에서도 문학사적 의의가 크다.

憲宗時부터 넘보던 일본이 強占한 날까지에는 증대한 일이 증첩되었다. 강화도조약, 歐美諸國과의 修交, 壬午軍亂, 甲申政變, 東學亂, 을사보호조약 등의 역사적 사건은 조선조의 사직을 위협하고 그 멸망을 재촉하는 일들이었다. 민족사회가 암흑에 싸여 있어 광명을 회구하는 마당에 舊來의 문화가 전보다 더 昂揚될 수 없었고, 舊制의 정치와 밀접했던 한시문학은 정치개혁으로 急轉直下格으로 失勢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高宗 31년에 일체의 科擧가 폐지되고 말았으니 한시문학의 命은 거의 끊어지게 되었다.⁵⁹⁾ 그러나 한시의 이러한 단절 위기상황에서 한시를 통해서 그의 문학과 사상을 펼쳤으므로 단절을 극복하고 전통적 한시를 계승했다는 의의도 두고자 한다.

면암의 한시가 표기 체계, 즉 전달매체로 하여 개화기 다른 문학장르 唱歌, 新體詩, 新小說 등과 같은 위치에서 조명되지 못했었고, 비록 관심을 보였어도 한말사대가에 국한된 것이었다. 위정척사와 면암의 한시는 한말 문학사에서 문학담당층의 확대를 증명하며, 면암이 남긴 방대한 문학적 집적물은 한말문학의 수용입장에서의 고찰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한자가 한말까지 대중적으로 쓰였으며 이에따라 한시문학의 수용범위도 넓게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학사의 정리에 있어서도 수용의 범위와 독자의 입장, 그 반응을 검토하여 한말 문학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59) 文璇奎, 《韓國漢文學》, 二友出版社, 1982. p. 249.

V. 結 論

이상에서 개화기 위정척사파 면암의 한시를 그의 생애, 배경 등을 통해 어떻게 형성되며, 그의 시세계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급박한 시대상황에서 면암의 현실인식은 시문학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가, 그의 문학관은 무엇이며, 유배상황은 시세계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리고 면암 시문학의 문학성은 어떠한 면에서 찾을 수 있는가 등을 고찰하여 그의 한시가 갖는 국문학사적 의의를 정리하였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요약하면,

면암의 생애(1833, 純祖33~1906, 광무 10)는 외세가 물밀듯이 우리 한반도로 밀려들어 오던 구한말을 살았다. 14세 때는 조선조의 巨儒, 華西 李恒老로부터 수업을 받으며 ‘憂國如家 事君如父’의 忠節을 다졌고, 23세 때 明經科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갔으나, 국내의 각종 민족적 모순에 접하고 이에 항거하다가 관직을 삭탈당하여 제주도, 흑산도 등지에서 4년 반동안이나 유배생활을 하였다. 이런 생활속에서도 春秋大義를 잃지 않고 義節의 길을 걸었던 조선조의 마지막 巨儒였다. 뿐만 아니라 유배지에서는 烏民의 教化에 힘쓴 민족의 敎育자였다. 만년에는 일본의 내정간섭을 격렬히 비난하고 민족의 양심에 호소하면서 의병을 일으켜 자주독립적 국권회복을 꾀하다가 일본의 무력앞에 구금되어 대마도에서 순국하였다. 면암의 생애와 시대배경은 면암 한시의 시세계에서 기백과 울분의 지기로 나타나며, 특히 吾道의 붕괴에 대한 면암의 현실인식은 본론에서 이미 논의한 개세와 재도의 시에 잘 표백되었고 우국의 내용이 그 기둥이 되고 있음을 고찰했다. 이러한 시세계가 면암 한시를 대표하는 사실도 확인된 셈이다.

면암의 시세계를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고 살펴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기백과 울분의 지기’에서는 憂國, 載道, 氣概, 慨世, 敎訓 등을 읊은 시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면암이 구체적인 문학론을 개진하지는 않았지만 ‘文以載道’를 주장하는 古文精神을 바탕으로 시작에 임했다. 면암의 위정척사사상과 시대상황에 대한 현실인식이 뚜렷하게 작품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했다. 개화와 척사의 모순적 시대상황에서 의연히 척사로써 전통질서를 고수하려는 의지가 우국과 개세의 시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고 載道의 내용을 읊은 시에서는 전통적 성리학의 문학관, 제도론적

문학관을 계승하고 있음을 살폈다. 이상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그의 시세계에 기둥이 되는 ‘기백과 울분의 지기’는 면암 한시를 대변하며 면암 한시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日常과 情感의 詠懷’는 먼저, 우국이 바탕에 깔려 개인적 정감을 노래하면서도 우국을 잃지 않은 모습, 둘째로 우국의 내용이 시 전개로 등장하여 개인적 정감으로 정화되는 경우, 그리고 평범한 인간의 고뇌와 고독을 시로 승화시킨 작품 등으로 고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면암의 시세계는 그 문학성과 더불어 개화기 한시 영역의 확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면암의 유배상황과 여기서 얻은 체험 등을 통해 면암 한시를 고찰할 때 前代의 유배시와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면암 한시의 국문학사적 위치를 정립할 계기가 된다.

‘自然과 交遊의 空間’은 탈속의 자세로부터 전개된다. 자신의 내부의 것을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자세다. 그러므로 탈속의 자세에서 관조하는 자연은 수양의 대상, 반성의 공간, 그리고 尋眞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자연관은 전통적인 성리학자의 자연관과 일치한다. 이러한 자연관은 발전하여 자연을 탐하고 사랑하는 자세로 전환되고, 그후 자연에 몰입하여 자연의 절대적 가치와 자적의 자세가 나타난다. 자연물과 일체가 되어 유유자적하는 仙分의 모습은 자연과 교유의 공간에서는 마지막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면암의 자연관과 문학성을 확인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면암 한시의 국문학사적 의의는 (1) 일제의 강요에 시행된 國政全般의 대변혁기를 살면서 전통을 수호한 정신사적 중요성이 그의 한시문학 속에 흐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 비록 문학관과 시론을 내세우지 않고 達意爲主인 재도론적 문학관에 의해 문학성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文學性이 높은 秀作이 보였다. 앞으로 면암 한시의 문학성은 인정되고도 남는다. 그리고 ‘日常과 情感의 詠懷’의 시세계에서는 개화기 한시의 영역을 확대했다. (3) 그의 한시 문학은 한국문학사에서 근대문학의 기점 논의에 충분한 의미를 준다. (4) 한시 문학의 명이 끊기게 될 위험한 시기에서 한시의 단절을 극복하고 전통적 한시를 계승했다는 의의 등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면암 한시만을 갖고 논의를 전개했기 때문에 종합적 고찰이 되지 못하였다. 앞으로 면암의 문학 연구는 한시에 국한하지 말고 ‘疏·書·記·祭文·神道碑·傳’등을 보다 전문적인 시각에서의 검토가 요구된다. 이런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둔다.

參 考 文 獻

著 書

- 《勉菴集》，勉菴先生紀念事業會，1970.
- 민족문화문고 간행회편, 고전국역총서 124, 125, 126 《勉菴集》 I, II, III, 1986.
- 김영호 編 《항일운동가의 일기》，서문문고 195, 서문당, 1977.
- 《姜瑋全集》，亞細亞文化社，1978.
- 《金澤榮全集》，亞細亞文化社，1978.
- 《李建昌全集》，亞細亞文化社，1978.
- 《黃玹全集》，亞細亞文化社，1978.
- 독립운동사편찬 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1971.
- 栗谷思想研究院, 《韓國思想論叢》第3輯, 1984.
- 한국인명대사전 편찬실, 《한국인명대사전》，신구문화사, 1967.
- 金允植·김현, 《한국문학사》，민음사, 1973.
- 金學圭, 《中國文學概論》，新雅社, 1977.
- 金학東, 《韓國開化期の 詩歌研究》，詩文學社, 1981.
- 金興圭, 《朝鮮後期の 詩經論과 詩意識》，고려대학교 民族文化研究所, 1982.
- 文璇奎, 《韓國漢文學》，二友出版社, 1982.
- 閔丙秀외 2인, 《開化期の 憂國文學》，新丘文化社, 1974.
- 朴晟義, 《韓國古典文學背景論》，宣明文化社, 1968.
- 朴晟義, 《國文學背景研究》，三友社, 1975.
- 朴晟義, 《韓國學史》，三友社, 1975.
- 白 鐵, 《신문학사조사》，신구문화사, 1980
- 徐臺教, 《朝鮮王朝刑事制度的 研究》，韓國法令編纂會, 1968.
- 宋載邵, 《茶山詩研究》，創作社, 1986.
- 宋貞姬譯, 《楚辭》 I, II, 明知大學校出版部, 1985.

- 劉若愚著，李章佑譯，《中國詩學》，同和出版公社，1984.
- 李家源，《韓國漢文學史》，普成文化社，1986.
- 李基白，《韓國史新論》，一潮閣，1966.
- 李丙疇，《詩聖杜甫》，文賢閣，1982.
- 李丙疇，《杜詩研究論叢》，二友出版社，1982.
- 李丙疇，《韓國文學上的 杜詩研究》，二友出版社，1979.
- 李丙疇，《고전의 산책》，二友出版社，1985.
- 李昇薰，《詩論》，고려원，1988.
- 李種燦，《漢文學概論》，二友出版社，1981.
- 李昌龍，《韓中詩의 比較文學的研究》，一志社，1984.
- 張德順，《韓國文學史》，同和出版社，1977.
- 張德順，《國文學通論》，新丘文化社，1960.
- 전형대의3인 共著《韓國古典詩學史》，弘盛社，1986.
- 鄭良婉，《朝鮮朝後期 韓詩研究》，誠信女子大學校出版部，1983.
- 趙東一，《한국문학통사》，지식산업사，1986.
- 趙演鉉，《현대한국문학사》，성문각，1978.
- 趙潤濟，《韓國文學史》，探求堂，1979.
- 趙潤濟，《國文學概論》，東國文化社，1955.
- 崔昌圭，《韓末憂國名上疏文集》，瑞文堂，1977.
- 河正玉，《屈原》，太宗出版社，1984.
- 洪一植，《韓國開化期の 文學思想研究》，悅話堂，1980.

論 文

- 高昌錫·梁鎮健，〈濟州島 流配에서의 勉菴 崔益鉉의 教學 活動 研究〉，제주대학교 耽羅文化研究所 耽羅文化 第9號 別刷，1989.
- 琴章泰，〈義理思想和 선비精神〉，《韓國思想의 深層研究》，도서출판 宇石，1982.
- 金古洛，〈韓末性理學과 義理思想〉－勉菴을 中心으로－《韓國思想論叢》第3輯，栗谷思想研究院，1984.
- 金古煥，〈韓末前後의 儒學思想〉，《韓國思想의 深層研究》도서출판 宇石，1982.

- 金榮喆, 〈開化期の 詩歌研究〉—舊韓末 新聞雜誌 中心으로 하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75.
- 金鎬城 〈勉菴義陳을 통해서 본 韓國民族運動의 實體〉《韓國思想論叢》第3輯, 栗谷思想研究院, 1984.
- 朴乙洙, 〈開化期の 抵抗詩歌研究〉(1), 《韓國學論集》第4輯, 漢陽大韓國學研究所, 1983.
- 安秉烈, 〈勉菴漢詩의 內容考察〉, 《語文論集》第23輯,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2.
- 梁淳珽, 〈朝鮮朝 流配文學 研究〉—제주도를 중심으로— 建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2.
- 梁淳珽, 〈李朝流配文學 研究〉,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69.
- 梁重海, 〈義兵精神과 韓民族의 主體性〉—勉菴 崔益鉉을 中心으로— 《韓國思想論叢》第3輯, 栗谷思想研究院, 1984.
- 劉元東, 〈한국사에 있어서의 근대의 기점〉, 《한국사 시대구본론》, 을유문화사, 1970.
- 尹絲淳, 〈韓國性理學의 전개와 특징〉, 《韓國思想의 深層研究》, 도서출판 宇石, 1982.
- 李澤徽, 〈朝鮮後期 斥邪論議의 展開과 그 意義〉, 《朝鮮朝政治思想研究》, 평민사, 1987.
- 林濟焄, 〈崔勉菴 研究〉—그의 사상과 시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 鄭漢模, 〈개화기 시가의 제문제〉, 《한국학보》 제6집, 一志社, 1977.
- 朱昇澤, 〈開化期の 漢詩研究〉, —文學觀과 作家意識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4.
- 許喆會, 〈勉菴 崔益鉉의 詩文學攷〉,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A study on the Myŏn Am's Chinese poems

—Mainly on the Exile poems—

Kim Kyŏng Kook

Myŏn Am(1833-1906) has lived in the end of Chosŏn Dynasty, when the influence of a foreign country came on like a flood. After he had studied under Yi Hang Rho, the great Confucianist, he held an office in the government. But he met with all kinds of national contradiction and offered much resistance to them. In consequence, he was arrested and was exiled to the Che-ju island and Huk-san island for some four years. In his later years he criticized severely the intervention in the domestic affairs by the Japanese and raised an army in the cause of restoration of its full sovereignty. In the long run he died in Tsushima island of Japan.

The end of this thesis is to interpret and appreciate Myŏn Am's exile poems and in addition, is to study how his thoughts are reflected in his works by the interpretation of the life of Myŏn Am, a conservative, and his exilic backgrounds.

The characteristics of his exile poems can be represented in three aspects, i. e. oneness with nature, the spirit of patriotism, and humanism. He tried to uphold the esthetic and contemplative view of nature of the early pioneers and moreover, showed us the spirit of overcoming nature. In nature poems he chiefly described the absence of vulgarity(or unworldliness), self-satisfaction, and love for nature. And he also represented the spirit of a scholar who held communion with nature. But never was he lost in sentiment and sorrow. Especially, "unworldliness" in his nature poems means self-discipline as practical doctrine, not a retired escape.

While other poets had their own view of literature, he didn't have. But he thought that literature is, that is to say, philosophy. So, in his patriotic poems he represented a firmer resolution worrying about his country than any other poet.

These poems consist of philosophical poems, noble spirit poems that his resolution is compared to a pine tree or chrysanthemum, and lamentable poems that deplore the situation of those days.

In his humanistic poems, there is tranquility without sentiment and sorrow represented in other poets' poems. He described tender-hearted humanity in this kind of poems. Therefore, his poems are properly balanced among their three aspects and this is the reflection of a scholarly spirit which formed the main stream of the then thoughts. So I would like to regard his poems as a scholarly poem.

The significance of his exile poems in the literary history resolves itself into the following four points. First, in spite of the great change by the Japanese we can see his powerful consciousness of the importance of tradition in his poems. Second, though he laid more stress on its content than its form in writing a poem, we can see powerful artistic quality in his poems, especially in his humanistic poems. This means that he expanded the realm of Chinese poem.

Finally, he got over the discontinuity of classical literature and inherited the traditional poetry.